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

202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안 지 영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안 지 영

인 준 서

안지영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0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경제,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전 인류의 기대수명이 연장되었고, 삶의 질이 윤택해졌다. 이로 인한 결과로 인간의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령화 세대들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시니어들이 서로 다른 문화들과 사회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 여성의 생의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배경에 따라 나타난 시니어 세대 여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시니어 세대를 연구하고,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 심리적 웰빙이 현대 시니어 여성의 일반적 특징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일반적 특징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며,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현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 여성이 만족도 높은 여가생활과 긍정적인 타인과의 유대관계,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79명의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한 조사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를 읽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질의문답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의 의미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의 2가지 요인을 사용하였고, 노화불안은 노인심리안정,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의 3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미용성형은 성형의향, 성형개선만족, 사회타인지향의 3가지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심리적 웰빙은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의 3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의 차이분석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생의 의미와 심리적 웰빙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수록 노화불안에서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지만 심리적 웰빙에서는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친구 수가 많은 대상자는 생의 의미, 미용성형에서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노화불안에서는 낮은 연구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생의 의미 중 의미의 추구 요인은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생의 의미 중 의미의 존재 요인은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생의 의미의 의미의 존재 요인과 의미의 추구 요인은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 요인과 계획실현 요인, 대인관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노화불안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화불안의 모든 요인은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요인에 유의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과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는 노화불안 중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노화불안 중 노인 심리안정 요인은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요인은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은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 요인에 대해 유의하였다.

다섯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미용성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로는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용성형이 의미의 존재, 의미의 추구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용성형이 노인심리안정,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에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시니어 세대는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여가사회활동을 즐기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자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더 나은 생을 위해 미용성형이라는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니어 여성들에게 있어 나이가 들어도 외모는 매력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미용성형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미용성형을 통한 외모개선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보장받고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비춰지게 하며, 자아존중감의 향상 등 생활 전반에 활기를 부여한다. 아울러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감을 상승시킨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은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나타난 현대 시니어 세대는 과거에 비해 가치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후대비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만 계획을 세우기 보단 심리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퇴직 후에도 남은 여가시간을 자신의 심리적인 안녕감과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미용성형 수용 및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니어 여성들은 본인의 여가생활을 다양한 국가의 해외여행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실현시키고, 다양한 세대의 인종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계획하여 그 계획을 실현 할 것이다. 또한 ‘젊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매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니어 여성들은 미용성형이라는 의료행위를 젊음을 유지하고, 외모를 개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보다 더 자주 이용할 것이며, 이는 외모의 노화와 관련된 성형수술의 기술발전과 외모의 노화예방 및 노화된 외모 개선과 관련된 기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가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 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로서의 역할로 초고령화 사회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 차

논문 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 1 |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시니어 세대 | 6 |
| 2. 생의 의미 | 15 |
| 3. 노화불안 | 24 |
| 4. 미용성형 | 32 |
| 5. 심리적 웰빙 | 41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49 |
| 1. 연구문제 | 49 |
| 2. 연구절차 | 50 |
|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 50 |
| 4. 측정도구 | 51 |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55 |
|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 | 55 |
|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요인분석 | 58 |

| | |
|---|------------|
| 3.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간의 상관관계 | 67 |
| 4.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의 차이분석 | 69 |
| 5.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84 |
| 6.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미용성형의 매개 효과 검정 | 94 |
| V. 결론 | 112 |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 | |
|---|-----|
| <표 1> 설문지의 구성 | 54 |
| <표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 | 57 |
| <표 3> 생의 의미 요인분석 | 59 |
| <표 4> 노화불안 요인분석 | 61 |
| <표 5> 미용성형 요인분석 | 64 |
| <표 6> 심리적 웰빙 요인분석 | 66 |
| <표 7> 상관관계분석 | 68 |
|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특성 차이분석 | 73 |
|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특성 차이분석 | 77 |
|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 특성 차이분석 | 80 |
|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 특성 차이분석 | 83 |
| <표 12>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 85 |
| <표 13> 생의 의미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87 |
| <표 14>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 89 |
| <표 15>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91 |
| <표 16>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93 |
| <표 17>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미치는 영향..... | 96 |
| <표 18>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미치는 영향..... | 99 |
| <표 19>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102 |
| <표 20>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미치는 | |

| | |
|--|-----|
| 영향 | 105 |
| <표 21>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미치는 영향 | 108 |
| <표 22>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11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사회는 의학의 급격한 발전과 전반적인 사회·경제 분야 기술의 도약으로 인간의 수명연장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인구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다(이순재, 2014). 인구고령화 사회는 시니어 세대라는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켰고, 시니어 세대는 현대사회의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고령층의 인구비율이 급증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김일석, 2014).

시니어 세대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최미선, 2011), 다양한 사회배경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시대에 살아왔던 존재로(정경환, 2003) 은퇴를 기점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축적된 부를 통한 경제성장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범석, 2014).

시니어세대는 은퇴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기능의 상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인 타인과의 유대관계를 상실할 수 있으며, 가계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위치와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잃었다는 자괴감, 상실에 의한 우울증, 심리적 불안정, 자살 등으로 부정적인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이제행, 조건상, 2017). 과거 시니어 세대와 달리 퇴직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의 상실을 맞은 상황에서도 퇴직자로서의 역할을 취득함으로써(이은희, 2013) 충분한 여가시간을 제공받아 다양한 계층의 친구들을 사귄 기회와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 취침시간의 변화, 교통수단이용의 변화, 식사장소 및 습성의 변화 등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이인수, 2004). 이는 시니어전환(senior shift)이라는 사회

적 현상으로 우리사회가 대면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제반분야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심자영, 서은경, 2018). 특히 과거에 비해 길어진 평균수명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은퇴자의 평균나이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이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큰 문제점으로써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060년에는 전 세계의 인구 약 41%가 시니어 세대에 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시니어 세대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지기철, 2020).

현대 시니어 세대 여성은 행복수명이 기대수명보다 짧은 현상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수명감소는 가계소득의 감소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위치와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잃었다는 자괴감, 상실에 의한 우울증, 심리적 불안정, 자살 등으로 부정적인 삶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퇴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기능의 상실에 의한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및 타인과의 유대관계의 상실을 경험 할 수 있어 생애 전반적인 불안감을 가져온다(전서영, 송지성, 2020). 이러한 현상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급격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김병태, 2018).

이러한 이유로 고령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살아감에 있어 살아왔던 본인의 생애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시기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의미를 부여하며, 전환과 적응과정에서 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정미경, 2008).

따라서 시니어 세대 여성들에게 생의 의미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관련이 있어 희망과 내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장선희, 최순옥, 2017).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은 생을 영위하는 동안 삶에 대한 목적과

가치를 판단하고, 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노화불안이 발생되어 다가올 노년기 생활에 대한 수용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Lasher & Faulkender, 1993).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노화불안은 신체장기의 자연스러운 노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나이가 들면서 떠나버리거나 잃게 될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며, 늙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불안감을 가지고 젊음을 지속하기 위해 미용성형과 같은 의료적인 행위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이혜진, 2018). 미용성형으로 향상된 외모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긍정적인 심리 변화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생활전반에 활기를 부여함으로써, 높은 자아상을 가지게 되며 이는 곧 심리적 웰빙과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이주미, 2016).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니어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에 따라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기술이 더욱 발달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나아가고 있는 시니어세대 여성들이 맞이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세대 여성들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심리학, 경영학, 사회학, 체육학, 서비스 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들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화 시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니어 세대 여성들이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영향을 줄이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니어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시니어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차이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외모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노화에 따른 외모의 변화는 매력의 저하로 판단되어 주름이나 윤곽의 변화 등을 미용성형이라는 의료행위를 통해 외적 노화를 개선시키며, 나아가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시켜 타인과의 유대관계의 향상 등의 결과를 가져오고, 생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 시니어 여성들은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여 삶에 의미를 찾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의식을 세워 실천해나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고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조기퇴직이나 과거보다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미용성형이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알아본다.

셋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차이를 알아본다.

다섯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미용성형의 매개역할을 매개효과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니어 세대

1) 시니어 세대의 정의

시니어 세대(Senior generation)는 시니어와 세대의 합성어로 연장자나 손윗사람의(두산백과, 검색일자: 2020. 03. 02) 연령층을 뜻하며(두산백과, 검색일자: 2020. 03. 03), 일반적으로 연장자를 뜻하는 노인이라 지칭된다(안가영, 2018).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Aging)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육체적·심리·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된다(최순남, 1984).

시니어에 대해 Moschis(2000)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화가 진행되어가고 있는 시기의 사람', '사회적인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기능이 점차 감퇴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고, Victor(1994)는 시니어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으로써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연장자 또는 노인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화하고자 노인 대신 시니어(Senior)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김지은, 2016) 뉴 시니어(New Senior), 시니어 시티즌(Seniorcitizen), 황금연령기(Golden Ages), 슈퍼 에이지(Super Age), 액티브 시니어(Activesenior), 엘더(Elder), 실버(Silver), 웹버(Web+Silver), 톱크(Twoonlynotkids) 등으로 불려진다. 앞서 언급한 명칭의 기준을 통일하거나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에서도 노인, 노년층, 실버세대, 고령자,

시니어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오영환, 2013).

현대사회에서 시니어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수혜를 받은 세대로써 독립적이고, 막강한 경제력과 소비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Babyboom Generation)를 의미하며(최미선, 2011),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직후 또는 큰 호황기와 같은 특정한 시기에 급증하게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최창숙, 2012).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전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1946년~1964년까지 태어난 세대인 리딩에지 부머(Leading-edge Boomer)와 레이트 부머(Late Boomer)라 하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団塊世代, 團塊世代)라 한다. 단카이 세대는 넓은 의미로는 1947년~1952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1947년부터 1949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5.6%에 해당되는 6.25 전쟁 이후 1954년~1965년까지 태어난 사람의 의미한다(남궁민지, 2007).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과거의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격변 속에서 성장 동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사회적 책임과 가정의 책임까지 수행했던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가족 중심의 소비 패턴이 자기개발, 패션, 미용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은퇴를 자기실현 기회나 제 3의 인생의 시작으로 간주한다(성창수, 2011). 또한 한국의 현대의 시니어 세대들은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을 했던 기존의 실버세대와 다르게 서로 다른 문화들과 사회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고, 70년대~80년대에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서 사회제도와 경제의 인프라구축에 의한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경제성장의 주된 역할로써 활약하고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오연정(2010)은 시니어 시대는 은퇴 후에도 청바지를 즐겨 입고, 독립적 성향과 경제력을 갖춰 생활하는 여유로운 노년세대라고 하였다.

즉, 시니어 세대는 과거세대와 달리 육체적인 건강과 여가활동에 관심이 매우 많으며, 기대수명의 증가와 은퇴시기의 연장은 직장생활의 연장으로

시니어의 소득과 소비력을 증가시키고 기존 세대보다 건강하고 부유한 새로운 소비계층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전서영, 송지성, 2020). 또한, 과거와 달리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즐길 수 있으며, 강한 개성을 보유함으로써 자기개발 또는 자아실현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낸다(이재행, 조건상, 2017).

시니어 세대의 범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항과 제 2항에 의하면 50세~55세 미만은 준 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였고(이윤진 외, 2015), 노인학에서는 65세 이상을 지칭한다고 했으며(백아름, 전수진, 2015), 김태훈(2015), 최경애(2018)는 50세부터 시니어라 하였고, 김정실, 이선재(2008)와 고범석(2014)은 55세 이상을 시니어라 하였다.

이처럼 시니어를 지칭하는 정의와 범위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학자마다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세대를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보유하고, 강한 소비력을 가진 세대로 정의하며, 시니어 세대의 범주를 고령자 고용촉진법, 노인학의 시니어 세대의 범위를 종합하여 시니어 세대의 나이를 5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시니어 세대의 특징

시니어 세대들은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동시에 경험했던 기존의 실버세대와 다르게 서로 다른 문화들과 사회적 배경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에 대한 의존성과 희생적인 모습, 가족주의 태도와 가부장적 권위주의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시니어 여성들은 자립적인 가치관과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희생하기보다 여가시간동안 자기개발을 하는 등 자신을 위한 삶을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석돈 외, 2013).

현대 시니어 세대는 의학발달에 의한 평균수명연장으로 은퇴를 한 이후에도 풍부한 여가시간이 제공되어 다양한 계층의 친구들과 사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생김으로써 시니어 세대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기상, 취침시간의 변화, 교통수단이용의 변화 등의 사회생활습성의 변화가 생겼으며, 식사장소 및 습성의 변화, 만나는 사람의 계층의 변화가 발생했다(이인수, 2004). 이러한 시니어 세대에게 자유로운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를 가지게 하며, 개인에게 있어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 전반에 있어 삶의 안정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홍숙자, 2010).

이처럼 사회전반적인 분위기 변화로 인해 풍부한 시간을 제공받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자유로운 본인만의 생활을 지낼 수 있는 반면, 자녀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손자, 손녀를 양육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할머니, 어머니, 아내 등의 다중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감수해야하는(안순옥, 2014) 이중의 경제적 책임을 맡고 있다(정경환, 2013). 하지만 시니어 여성들은 이중의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사회활동에 관여하며, 새로운 소비 주체를 이루며, 각종 사회단체에 속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약 60%의 시니어 세대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통계청, 2017, 검색일자: 2020. 05. 03), 국내 토지의 42%, 건물의 58%, 주식의 20%를 소유하는 등 막강한 소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일석, 2014).

시니어 세대의 특징은 크게 신체적 특징, 심리적 특징, 사회·경제적인 특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신체적 특징과 심리적 특징이 노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신체적·심리적인 노화로 구분된다.

시니어 세대의 신체적 노화는 신체구조 및 기능의 쇠퇴로 인해 활력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의 상실을 뜻한다(권중돈, 2019). 노화의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개인차가 크고 생애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환경적, 문화적, 사회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개인의 맥락에서도 개입함으로써 심리변화와 사회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원석조, 2018). 특히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화의 큰 특징은 폐경기로 여성호르몬 분비의 감소로 발생되는데 신체의 수분 감소와 골격의 탄력 저하로 인해 잦은 골절상을 입을 수 있고, 전반적인 신체의 지방이 크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진다(최성재, 장인협, 2006).

심리적 노화는 감각기능, 정서 및 정신 기능, 성격과 인지기능 등 심리내적인 측면과 함께 심리외적인 측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퇴행과 유지 및 성숙을 동시에 포함하는 심리적인 조절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노화와 연결성이 깊다. 심리적인 노화가 생기므로 사회적인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노화가 사회적 노화와 상호작용 하는 영향이라 볼 수 있다(신용주, 김혜수, 2016). 또한 정보기능의 쇠퇴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기억력의 감소를 유발하므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

며, 이는 내향성 및 의존성의 증가로 나타나 기억상실과 함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기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 시니어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방황과 함께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며, 우울증은 신체질병이나 배우자의 죽음, 경제적인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소외와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의 불가능, 과거에 대한 회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하해화, 2010).

시니어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징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독립적인 세대로써 살아가려고 하고(허원희, 2012), 경제적인 소비력을 보유하여 안정적인 구매력을 통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문화생활, 레저 활동 등 다양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고 있다(전정원, 2008). 또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디지털 정보의 획득을 통한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인종, 지역, 타 문화와의 교류 및 소통, 유행에 대해 빠르고 민감하게 수용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허원희, 2012). 시니어 세대 여성은 미래지향적인 성향과 개방적인 가치관을 보유함으로써 나이에 의미를 두는 것 보다 ‘젊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낮게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개성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의 여가시간에 여러 분야의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고, 외모 또는 외양에 높은 관심을 가진다(박혜영, 2018).

이승우 외(2010)는 시니어 세대의 특징에 대해 자신들을 위해 가치 있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소비를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낸다고 하였으며,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성형이나 다이어트 등 외모관리를 통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안정감 있는 생활을 추

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자신감에 의한 적극적인 생활 태도, 건강과 합리적인 능력, 자신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소유함으로써 강한 독립심을 가진 여성상을 나타낸다(이은정, 2018).

따라서 시니어 세대는 고도의 경제성장시대에 살았던 세대로써 높은 소득 수준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시니어 세대는 과거와 달리 은퇴 후에도 은퇴를 자기실현의 기회 또는 건강하고 활기찬 제3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소비력을 가진 세대라 할 수 있다.

3) 시니어 세대의 선행연구

시니어 세대는 전 세계적인 초고령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세대로 시니어 세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인생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시니어 세대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사회구조와 제도상의 이유로 정년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를 의미하고,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고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한 세대라 할 수 있다(지기철, 2020).

이은정(2018)의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 세대는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자립적인 가치관을 통한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시니어 세대 여성은 자녀양육의 의무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건강관리와 노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하민아(2018)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 여가사회활동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소외감과 고독감의 해방과 자아존중감의 상승, 자신감 고취,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아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 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현재의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은 자존감이나 자아충족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자신의 연령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다 젊게 인식하여 노화를 극복하려 하고, 실제 연령과 주관적 연령의 차이는 실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 연령을 젊게 지각할수록 자존감과 자아 개념이 높고, 주관적 연령이 젊을수록 생활수준과 건강상태가 높으며, 외모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정시은, 2018).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시니어 세대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되는 것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나 미용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미경, 2011).

시니어에 대해 정환목(2018)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현실점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시니어 인구 증가 추세를 보았을 때 시니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2017)의 시니어창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를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창업자를 위해서 지원되는 제조업에 관한 지식서비스 업종 같은 기술 창업 분야의 실질적인 창업 교육과 창업자의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 및 자문, 경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창업 교육 및 멘토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우 외(2010)의 연구에서는 시니어 세대는 은퇴를 함으로써 취업 및 고용문제 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시니어 창업자를 위해서 실질

적인 창업 교육 및 시니어를 위한 공간, 경영교육, 마케팅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현대사회의 취업난, 고용난의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현대사회의 의학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시니어 세대는 전반적인 사회와 경제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의 의미

(1) 생의 의미의 정의

생의 의미란 개인이 개인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목적, 일관성 또는 일치감, 삶의 목표에 대한 방향이나 그 목표들의 실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만들어내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모두를 포함한다(Reker & Chamberlain, 2000).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이 부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삶에 대한 행복에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간의 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박정묘, 2007) 생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생’과 ‘의미’로 나뉘서 설명할 수 있다. ‘생’은 사는 일 또는 살아있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기했으며,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일 또는 그 태도나 방식이라 하였다(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2020. 06. 12).

‘의미’라는 뜻은 말 또는 글의 뜻 그리고 행위나 현상이 가진 뜻이며,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또는 현상의 사고를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표기하였다. 또한 ‘의미’를 어떠한 말이나 글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어떠한 사물 또는 일 그리고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과 그 행동에 담겨 있는 뜻이나 의도를 뜻한다고 했다(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2020. 06. 15).

위에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생의 의미는 설명되며, 생의 의미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힘을 강조함으로써 여러 영역의 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Ryan & Deci, 2001).

‘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는 ‘Victor Flankl’에 의해 시작되었다. Flankl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의미에서 의지(will to meaning)’이며, 이후 인간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한 동기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Flankl, 2012; 장선희, 2015).

생의 의미는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 위에 생의 의미를 체계화시켜 의지의 자유에서 인간 본질의 특성으로 영성과 자유가 도출되고, 의미에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책임이 도출된다. 또한 완성을 향한 인간 존재의 참된 본질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으로써 생의 의미는 살아가는 본질적인 과정을 말한다(Brunelli et al., 2012).

생의 의미에 대해 Ryff & Singer(1998)은 자신의 삶에 있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간과 함께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이라 하였고, 이러한 목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노력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목표 지향성과 목적성이라고 정의하였다.

King et al.(2006)는 생의 의미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안녕감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고, Scollon & King(2004)은 ‘생의 의미는 바람직한 삶(good life)를 대표한다.’고 하였으며, Chamberlain & Zicka(1988)는 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Fredrickson(2000)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정서적인 의미를 찾으며, 과거에 대한 다른 바를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 활동들을 결정하는 것이 생의 의미라고 했다.

이처럼 생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삶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고, 여러 가지 유형과 구조를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정숙희, 2017).

또한 Steger et al.(2006)은 삶의 의미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통한 재분석

과정에서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이루어진다고 구분하였으며, 의미추구란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내적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판단함으로써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동기를 뜻한다. 또한 의미발견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존감과 낙관적인 성격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Davis et al.(2000)은 상실된 의미와 사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삶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안녕감으로 연결 될 수 없고, 오직 삶의 의미를 발견하였을 때만이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심리적인 고통이 수반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과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숙희, 2017).

위와 같이 생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세상에서 살아감에 따라 가장 본질적인 원천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삶을 위한 방향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시니어 세대의 생의 의미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긍정적 대처방식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의 의미는(김주연, 2015) 시니어 여성에게 있어 생산성을 예측할 수 없는 변인이다. 심리 기능에 따라 사랑체험, 자기 초월, 관계체험, 헌신에 차이를 나타내며, 주관적 안녕감의 기본 요소로써 위기감과 정신건강 상태를 설명해준다(여정숙, 2012).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생의 의미는 과거에 자신이 이뤄놓은 업적을 토대로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자부심에 찬 자아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기중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곧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살아감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태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죽음에 대해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무관심, 극도의 불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이강호, 2002).

생의 의미에 있어 시니어 세대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시기로써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환과 적응과정에서 혼돈감이나 실망감 또는 불확실성, 삶에 대한 회의로 자기정체성 및 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정미경, 2008).

김은아(1992)는 시니어 세대에게 생의 의미는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면서 나이가 들에 따라 신체변화, 심리적인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 현재까지의 생활을 재배치와 재적응을 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구축해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시니어 여성들은 가족 부양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자신들의 건강문제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고통, 대

인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축소 또는 상실되어 사회적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적극적인 도전과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김숙남 외, 2002).

김명자(1998)의 연구에서는 시니어 여성들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공적역할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실해졌으며, 사회 또는 가정에서 큰 책임을 수반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해당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니어 여성들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발달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신경증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우울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비탄에 빠져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니어 세대 여성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장선희와 최순옥(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는 정도인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미래지향적 시각과 관련이 있는 희망과 내적인 안정감을 가져오는 영성수준의 매개를 거쳐 삶의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정미나(2014)는 생에 있어 목표와 자기실현을 할 수 있고,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웰빙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다차원적인 웰빙으로 설명되는데(Ryff, 1989), 주로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써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생에 대한 의미를 모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Ryff & Singer, 2000). 또한 건강상태나 위기대처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생의 목적과 생의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자신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정미경, 2008).

김순안(2010)은 시니어 세대의 여성의 삶의 의미는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의 상실은

삶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미래에 직접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시니어 세대의 여성이 생에 대한 의미를 모색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정체성이나 본인이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 또는 과제로 인한 내부적인 사건 또는 위험한 위기나 고통에 처한 본인이 본인의 과거에 대한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기회의를 통해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생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통합성을 확립하는데 의의를 지니고 또한 개성화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삶을 영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생의 의미의 선행연구

생의 의미는 성숙과 자기실현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청소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일생동안의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Compton et al., 1996).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기를 바라며, 개인적인 노력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획득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생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불안정한 삶에 안정성을 부여해준다(Baumeister & Kathleen, 2002).

생의 의미는 정신건강이나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Homan & Boyatzis, 2010) 볼 수 있으며, 긍정적 대처방식을 촉진시키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생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경우 행복, 만족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생의 의미를 찾는데 실패할 경우 자기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의 상실에서 오는 인생의 무가치, 무의미, 고독과 불안, 권태감 등 허전하고 텅 빈 느낌의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다(박운진, 김금중, 2017). 이는 생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시기의 시니어 세대에게 있어 삶의 관점 또는 가치관을 비롯하여 인생의 목표나 역할과 행동,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 등 생의 의미가 다시 제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정묘, 2007).

시니어 세대의 생의 의미를 연구한 이경희, 박성희(2006)은 생의 의미가 다시 제기 된다는 것은 삶에 있어 전환과 적응과정에서 오는 혼돈감이나 실망감, 불확실성과 삶에 대한 회의에 의해 자아정체성 및 생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로 볼 수 있고, 인생 목표와 성취의 정도, 중요시 했던 가치들, 타인과의 관계 등 지나온 삶의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위

기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정미경(2008)은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수준이 위기감을 대변해주는 변수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의 의미가 높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 결과로는 이임순(2020)의 연구가 있고, 이는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 아울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는 결과를 말한다.

생의 의미 수준은 개인이 자신의 실존에 부여하고 있는 의의와 목적정도를 뜻하며, 의미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사건이 개개인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고, 위기감이 자아정체감의 재확립과 목표수준의 재설정,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이 과정을 말한다(김숙남 외, 2002). 이강호(2003)는 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 건강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자아초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였고, 개인과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의미를 높일 수 있다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김순안(2010)의 연구에서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요인과 역할상실 등이 노년기에 있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여 다양한 대상에 따른 생의 의미에 대한 기준을 연구하기 위한 척도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먼저, 삶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척도는 Crumbaugh & Maholick(1964)의 삶의 목적 척도(Purpose in Life test: PIL)가 있으며 이 척도는 Frakl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척도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의미 혹은 목적의 정도를 평가한다. 인생 관점 지표(Life Regard Index: LRI)는 Battista & Almond(1973)가 연구하고 개발하여 생의 의미를 ‘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체계(Framework)와 실현(Fulfillment)라는 두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생의 의미를 측정하는 도구를 모두 합하고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Steger et al.(2006)이 개발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가 있으며, 이 척도에서는 생의 의미를 인간본연의 타고난 존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라 설명하며, 본인의 생의 의미를 정의할 때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상대적 이론을 택하였다. 또 하위 영역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와 동기인 '의미추구'와 살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의 '의미발견'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생의 의미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있어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의를 통해 미래생활을 재배치·재적응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본질로 이해될 수 있고, 개성화가 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며, 삶을 영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생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녕감과 정신적인 안녕감, 신체적 안녕감으로 연결 되어 초고령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노화불안

1) 노화불안의 정의 및 유형

노화불안(Aging Anxiety)은 ‘노화’란 개념과 ‘불안’이라는 개념이 이루어진 합성어로(Warkims et al., 1998) 신체건강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초래될 수 있는 현상과 근심으로 생기는 불안한 상태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은 노인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신체적으로도 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늙었다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소외 혹은 격리되어 홀로 고독을 견디는 것조차 당연시 여기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해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으로 보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등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노화불안이라고 한다(Grahm, 2003).

노화는 시니어 세대의 큰 특징으로써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현상으로 외형적·생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의 변화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노화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간 유기체 전체에 보편적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긍정과 부정적 변화를 의미한다(한정란 외, 2004). 노화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신체적 노화는 물론,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축소됨과 동시에 경제적 능력의 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 자연스러운 과정 중 일부이라 할 수 있지만 상실과 축소의 경험은 두려움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두려움의 감정은 일종의 불안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정주희, 2020), 연령증가

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각종 상실과 연결되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노화 불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성기옥, 2016).

Lasher & Faulkender(1993)은 노화불안에 대해 다가올 노년기 생활에 대한 수용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하였고, Neikryg(2003)은 ‘노화불안은 노년의 삶의 결정하는 삶의 형태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재희와 김옥(2015)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들이 사회구성원의 노화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특히 노화불안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 외모지상주의 등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특성에 의해 등장한 개념이라고 했다. 또한 McConatah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은 노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년의 삶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기회에 대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노화불안은 노년학 및 발달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노화과정에 적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개별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려움, 늙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으로 늙었다는 판단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김유진, 2017).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신체 및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발달의 한 측면인 노화불안은 노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노화불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학자들은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는 외형적,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화의 측면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영, 2017; 한정란, 2005). 하지만 현재 노화의 개념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다르게 해석되어

진다. 과거의 노화는 산업화의 영향, 젊음에 대한 선호로 질병, 쇠퇴, 상실,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부각되고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노화에 대해 성공적 노화, 건강한 노화, 능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 활동적 노화, 창조적 노화, 똑똑한 노화 등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정석식, 2015).

노화불안의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노화불안의 유형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화에 따른 심리적 두려움, 노인 자체에 대한 두려움, 외모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관계, 신체적 건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준경, 사회적 활동 및 역할과 같은 외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며, 심리적 두려움은 노화의 과정에서 개인이 겪게 되는 내면적인 두려움을 의미한다(양은진 외, 2019). 노화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정은 개인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며, 개인에게 있어 노화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인 과제를 의미한다. 노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본인의 노화에 대한 불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노인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성과 노인들과의 원만한 상호관계를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둔다. 또한 외모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으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한다(유숙자, 2016).

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Lasher & Faulkender(1993)은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노화에 대한 불안의 다차원적 측면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노화불안에 대한 모델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으로 노인학 문헌에서 제시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또는 영적인 차원을 바탕으로 노화불안의 4가지 유형과 함께 AAS(Anxiety about Aging Scale)연구도구를 개발했다(서대석, 2018).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

시니어 세대의 노화불안은 연령차별주의적인 사회분위기로 무능력한 존재,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등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걱정과 노후에 대한 불안을 말한다(성기옥, 2016).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노화불안이란 모든 신체장기의 노화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여유와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며, 결혼을 통한 행복감과 안정감을 얻음과 동시에 자녀양육, 모성역할, 사회적 활동과 역할변화에 따른 책임감, 압박감, 죄책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로 떠나버리거나 잃게 될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함을 의미한다(이혜진, 2018). 시니어 세대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데 이는 아동부터 외모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되어 왔기 때문이다. 노화불안에 수준에 있어 연령층이 높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 보다 연령층이 낮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화불안이 더 높게 나타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노화는 외모의 매력도 저하와 건강의 상실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arrett & Robbins, 2008).

늙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연령차별주의, 성차별주의라는 편견으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자존감을 저하 시킨다. 이와 같이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은 삶의 질 또는 정신적인 건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해석될 수 있다(신경일, 2015).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은 노화증상들의 경험을 겪는 동안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은 노인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현대의학발달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고, 가치관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과거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김민희, 신순옥, 2014).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화불안은 은퇴준비와 심리적인 안정감 사이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인척 등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 이는 노후생활에서 정서적인 문제들이 건강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와 앞으로 더 살아감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성우, 2020).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노화에 따라 심리적으로 점점 우울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폐경과 주름발생 등의 외모변화를 여성성의 매력저하로 판단하여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할머니, 어머니, 아내 등의 다중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감수해내는 다중 역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안순옥, 2014).

이와 같이 많은 역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교육수준 등의 향상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생활수준의 변화로 과거와 다른 가치관과 의식 수준이 변화하였다. 변화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삶의 질이 달라지고, 노후대비에 따른 대책 또한 과거와는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다.

3) 노화불안의 선행연구

노화불안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늙어가고 쇠퇴하여 떠나버리거나 잃게 될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며, 노화불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화불안은 노화에서 시작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며, 노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분위기로 사람들은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시니어 세대는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줄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하고 있다(김숙남 외, 2008).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기회를 선택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김현정, 2013), 개인이 겪고 있는 일에 있어 힘듦과 해당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노화불안 정도는 증가한다(Tallis et al., 1991). 이러한 노화불안은 개인의 정서 상태에 위협이 될 수가 있고(강향미, 2015), 노화불안을 느끼는 시니어들은 주관적 웰빙과 심리적 웰빙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Beirs et al., 1999).

오은아(2020)는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주는 노화불안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는데 노인접촉경험, 노인고정관념, 성별, 노화지식,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하였으며, 양은진 외(2019)는 노화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들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결속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니어 세대의 노화불안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Lasher & Faulkender (199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남성이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위치의 하락 때문이라고 하였

다. 반면 Harris & Dollinger(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한국 노인과 미국 노인의 노화불안을 비교 연구한 김욱(2010)의 ‘한국 64.2%’, ‘미국 78.6%’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이 노화를 여성성의 매력상실과 건강의 상실로 보기 때문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화불안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시니어 세대의 여성은 퇴직 후 소득의 감소, 건강의 악화, 배우자 사망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높은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김화선 외, 2009), 노후준비 수준과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시니어 세대의 노후 준비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노화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노화불안이 높아지고, 노후준비는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거나 의미를 찾는 행동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시니어 여성들은 경제적 상황이 좋으며, 양육할 아이가 있는 시니어 여성들보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매력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은아, 2020).

시니어 세대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령 차이를 연구한 김숙남 외(2008)는 노화불안은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 여성 중 50대가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다고 하였고, 이는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중년 초기가 중년 후기보다 높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홍금희, 하주영, 2015). 또한 이정희(2008)는 40대, 50대, 60대의 시니어 여성들의 노화불안 정도를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이 노화불안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은 젊음에 대한 상실과 외모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노화불안은 세월이 흘러감에 있어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의 노화에 대한 불안감과 늙어가고 쇠퇴하여 미래에 떠나버리거나 잃게 될 무엇

인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살아감에 있어 긍정 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 노화에 의한 외모의 변화는 심리적 불안감과 생의 의미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4. 미용성형

1) 미용성형의 정의 및 분류

성형외과(Plastic Surgery)라는 뜻은 정형외과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진료 과목으로써 선천성 기형 및 후천적으로 받은 변형에 대해 조직의 이식·이동 등 외과적인 방법을 써서 정상에 가까운 모양으로 고치거나 만들어내는 외과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미용 성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스어로 “형태” 혹은 “주형”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Plastikos’로부터 유래된 성형외과 의사들은 과거 “미용의사(Beauty doctor)”라고 불렸던 사람 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성형외과 의사(Plastic Surgeon)”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으며, 본인들의 기술을 “외모(Featural)”, “미용(Cosmetic)”, “심미(Aesthetic)”로 통용되던 것들과 달리 ‘성형외과’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고집하였다(Elizabeth Heiken, 2008).

기원전 800년경 고대 인도에서 피부이식과 코 또는 귀의 복원술로 시작된 미용성형수술은 오랜 시간동안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한 행해져 왔으며(Timothy & David, 2009), 미용성형수술이라는 의학기술은 화장과 치장으로만 행해지던 미용행위라는 한계점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의학적 문제점과 미용성형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또한 신체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인 사유로 행해지고 있다(이주미, 2016).

현대사회에서 미용성형은 근래에는 외모комплек스를 극복하고 생활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영역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의학이라고 하여 행복의학이라고도 한다(양두병, 1999). 행복의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의 외형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신체적 결함 또는 신체적 손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 등을 개선시키며, 개선된 외모는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신효정, 2002).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현재 미용성형수술에 대하여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용성형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는 개개인마다 능동적으로 성형수술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미용성형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최미혜, 2010).

허은주(2015)는 미용성형에 대해 인간에게 있어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의 관심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적인 아름다움을 적극적인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고, 수술 또는 시술을 통해 기능장애와 열등감을 극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외과적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미용성형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꾸기 위한 외과적 처치로써 외모에 따른 불안이나 우울, 두려움 등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심리변화를 이끄는 행복의학이라 할 수 있다.

미용성형은 수술 방법에 따라 크게 외과적인 방법과 비 외과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슴, 지방, 눈, 복부, 유방 등을 외과적인 방법으로 분류되고, 보톡스, 필러, 레이저, 화학적 필링, 레이저 필링 등을 비 외과적인 방법이라 분류 될 수 있다(태희원, 2010). 또한 미용성형수술은 크게 얼굴성형, 피부성형, 가슴성형, 주름제거, 체형보정, 기타로 분류되어 나눌 수 있다(대한미용학회, 검색일자: 2020. 06. 28).

미용성형 수술 중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얼굴성형으로 크게 눈 성형, 코 성형, 입술성형, 안면 윤곽수술로 구분한다(최미혜, 2010). 피부성형은 점, 기미, 주근깨 제거, 여드름 치료, 반영구 화장, 문신제거, 흉터제거, 주름제거가 있으며, 가슴성형은 유방 확대술, 유방 축소술, 함몰 유두, 처진 유방 교정,

유방재건수술이 있다(양두병 외, 2002). 주름 제거수술은 안면 거상술, 화학적 박피술, 레이저 박피술로 나뉘며, 체형보정 성형수술로는 지방절제술, 지방흡입술 종아리 성형수술이 있으며(최미혜, 2010), 기타수술은 액취증, 보조개, 애교, 배꼽성형, 화상치료수술, 점제거, 제모술, 모발이식, 지방 주입술(얼굴, 손, 가슴 등)이 있다(엄현신, 2007).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에 대한 실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삶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의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과거에 비해 미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졌다. 의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은 시니어 세대 여성의 사회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사회활동의 증가는 대인과의 접촉을 활발하게 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도의 상승으로 연결되어졌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이영희 외, 2018).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은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한층 더 밝게 변화할 수 있고(차영란, 김기범, 2006), 사회적인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며(김민지, 2017), 향상된 자신의 외모에 대해 타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즉, 미용성형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의식하는 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장준수, 2011).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세계 1위로 부상하게 되었다(조미나, 최미옥, 2019). 이는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우경자, 2002).

미용성형은 외모의 개선과 개인의 인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Goldenberg et al., 2000). 특히 미용성형으로 인해 어려 보이는 효과, 젊어졌다는 느낌, 자신에 대한 평가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에 특히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장준수, 2011).

이동옥(2014)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화불안은 연령차별과 외모중심주의와 관련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발한 사회활동과 강한 자기 개성 표현이 가시화되어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미용성형은 현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눈 성형과 리프팅성형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19년 1월~4월까지 50대 이상 내원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증가했고, 2020년 1월~4월까지도 25% 이상 늘어 2년 전과 비교해 78% 넘게 증가하였다고 했다. 눈 성형 건수는 2019년 1월~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80% 이상 급증했다고 하였다(Bravo my life, 2020, 검색일자: 2020. 05. 29).

5년 전만 해도 미용성형의 주요 고객층은 20대 초·중반과 30대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50대 이상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오팔세대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의 가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성향으로 인해 미용성형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쿠키뉴스, 2020, 검색일자: 2020. 05. 01).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외모 개선을 통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안 성형’에 관심을 가지며, 이마와 미간 주름의 경우에는 절개 방식인 ‘이마거상’을 통해 주름을 제거하고, 눈꺼풀 및 눈썹 처짐의 경우에는 ‘눈썹 거상’ 또는 ‘절개상안검’을 진행한다. 또한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비절개상안검’이나 ‘눈두덩이 지방제거술’을 시행비율이 높다고 한다. 눈 밑주름, 눈물고랑, 눈 밑지방, 볼 꺼짐, 팔자주름 등은 ‘안면거상’을 통해 완화시키며, 안면거상은 회복기간이 길지만 주름과 처짐 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는 수술이라고 조사되었다. 입꼬

리 수술은 원인에 따라 CO2 가스, 필러, 리프팅, DNA 연어주사, 레이저 등의 복합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인중은 처짐 정도에 따라 절개 인중축소와 비절개 무흉 인중축소 방법을 사용한다. 윗입술의 주름은 레이저, DNA 주사, 보톡스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으며, 목 피부는 거상법을 이용하여 늘어난 피부를 제거하고 수술자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헤어라인에 최대한 근접하게 절개한다(조선일보, 2019, 검색일자: 2020. 06. 02).

현재 시니어들은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중 미용성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층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외모 가꾸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한국경제, 2017, 검색일자: 2020. 05. 30).

이처럼 미용성형은 시니어 세대들에게 있어 어려보이고, 젊어졌다는 느낌을 부여하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에서 여가생활을 타인과 함께 긍정적으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미용성형은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시대에 심도 있는 연구와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함을 알 수 있다.

3) 미용성형의 선행연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현상으로 미용성형에 대해 개인 및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박혜미 외, 2016).

미용성형은 단지 외형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심리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며, 변화의 욕구는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외모나 자존감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미용성형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최미혜, 김경희, 2013).

지경환과 이상익(2001)의 미용성형수술이 환자의 심리적 영향에 미치는 연구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외모의 어떤 측면에서 불행함을 느끼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변금순 외(1999)의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남·여 환자들은 수술 전 보다 수술 후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수술 전 환자들의 신체만족이 낮을수록 수술 후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용성형이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Sarwar et al.(1998)의 연구와도 같다. 또한 Edgerton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미용성형 수술환자 100명을 오랜 기간 추적조사를 했는데 미용수술 후 약 6년 뒤 미용성형수술의 전체 환자 중 73.8%의 환자가 심리적으로 좋아졌고, 3.4%의 환자는 더욱 악화되긴 하였지만 고소, 자살 또는 정신과적 발병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Hay & Heather(1973)는 환자가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한 2년 후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감이나 개인적인 질병, 히스테리, 강박증 등의 정신적 문제들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미용성형은 심리학적 측면에서 외모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사회적 대상으로 성행되고 있으며(Cash, 1988), 사회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 사회적 이유는 외모로 인한 사회적 냉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사회구성원의 외적인 평가에 의해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외모를 가지려는 노력을 말하며, 개인적인 이유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긍정적인 신체상, 건강한 자기개념과 자기신뢰의 향상, 사회적 적응 능력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지경환, 이상익, 2001). 사회적, 개인적 측면에서 미용성형을 수용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고(김민지, 2017), 외모가 놀랄 만큼 향상된 후 자신의 외모에 대해 타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영란, 김기범(2006)에 따르면 미용수술 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승인으로 인한 만족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밝은 성격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하였고, 장준수(2011)의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의식하는 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박연희 외(2013)의 연구에 따르면 미용성형은 사회적으로 직업기회와 같은 수용성을 증가시키고,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배우자와 이혼과 같은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니어 세대의 여성이 외모에 대한 관심은 미용성형수술 전보다 수술 후 삶의 만족이 높은 결과가 나타나(Moss & Harris, 2009) 삶의 질과의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성준, 2013).

미용성형은 외모의 개선을 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인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리적으로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Goldenberg et al., 2000).

현재 미용성형시장은 규모가 수천억대에 이를 정도로 급팽창하면서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다. 성형외과전문의 증가율이 모든 의학 분야의 전문의사의 3배가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정희, 2008). Slevac & Marika(2010)의 연구에서는 성형수술의 횟수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173%가 증가했고, 1992년부터 2000년까지는 198%가 증가하였다고 했다. 또한 성형수술의 인기는 2008년 미국에서만 조사한 결과 1200만 건의 미용성형수술이 수행 되었으며, 2010년에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미국인은 약 1,310만 명으로 2000년 대비 77% 증가하였다고 한다(장준수, 2011).

Slevac & Marika(2010)는 성형수술이 부자와 유명인,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청년 및 노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 찾으며,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 미용 산업이 성형 관광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듯 미용성형은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되어(신명수, 2011) 현대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문화적 관념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상업주의와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외모중심의 고용증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경쟁사회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의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을 알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용성형은 단지 자기만족을 위함만이 아니라 취업이나 면접 등 원활한 사회생활과 자기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행위로도 볼 수 있고,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적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놓인 시니어 세대의 조기퇴직, 역할변화, 노화불안, 생의 의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심리적 웰빙

1) 심리적 웰빙 정의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인간의 균형 있는 삶을 측정해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들의 합을 의미하며 다양한 척도를 구축하여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유병웅, 2016). 심리적 웰빙은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개인이 개인의 삶의 질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인생전반에 대해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로 본인이 얼마나 자아실현을 성취하는지 표현하는 자기실현적 관점이다(김효실, 2014).

심리적 웰빙은 웰빙(well-being)에서 파생 되었으며, 웰빙은 영어대사전(1955)에 의하면, 좋은(만족할만한) 생활상태, 건강하고 행복하며 번영하고 있는 상태, 행복, 안녕, 복리, 복지를 뜻한다고 기술되어 있다(이정순, 정원배, 2005). 근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 1948)에 의해 유래 되어(박상오, 2008) “단순히 병이 없는 또는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정의하였다(김연정, 2018). 따라서 웰빙은 건강상태의 지표로써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목표를 확인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환경을 개선 또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어 주체성에 관여 하는 신념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행복주의 전통에 근거하여(정미나, 2014) 사회심리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측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또는 심리적 웰빙 등의 다양한 용어로 발전하여 사용되어 왔다(염계화, 2005).

Ryan & Deci(2001)는 웰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쾌락주의적(Hedonic) 관

점의 웰빙과 자기실현적(Eudaimonic) 관점의 웰빙에 대해 기술하였다. 쾌락주의적 관점의 웰빙은 주관적 웰빙으로 평가되어 인지적인 요소 또는 정서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나아가며, 얻은 삶의 경험을 의미하고(Galvinha & Pais-Ribeiro, 2008), 자기실현적 관점은 개인적 성장과 발달,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아 발휘할 수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이용하여 기능하는지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1). 반면 Ryff(1989)는 이러한 자기실현적 관점에 기초하여 주관적 웰빙의 행복 또는 만족만을 바라는 이론적 개념 및 쾌락주의적 관점(김효실, 2014)에 반기를 들면서 진단심리학, 인간발달 및 정신건강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차원적인 웰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심리적 웰빙이라고 한다.

심리적 웰빙은 인생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로 본인이 얼마나 자아실현을 성취하는지를 표현하는(유병웅, 2016) 자기실현적 관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며, 인간 잠재력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개인이 어느 정도 잘 다루는지를 중요시한다(김효실, 2014).

심리적 웰빙이라는 용어는 처음 사용된 이후 조직 구성원들이 삶에 대한 목적을 바탕으로 개인이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깨달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험하는 상태를 뜻하며(Ryan & Deci, 1984),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 실현, 완벽함의 추구로부터 개발되었다. 또한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보다 나은 삶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Ryff & Singer, 2000). 심리적 웰빙이 높은 삶을 가진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있어 긍정적 대인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상황에 있어 본인이 처한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삶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시키려고

노력한다(유병웅, 2016).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심리적 웰빙은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개인적 성장요인은 삶에 대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고, 개인적 성장은 긍정적인 삶과 더불어 긍정적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명소 외, 2001). 또한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자기표현의 상대적 영향력은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효과적이고, 시니어 여성들의 자기표현은 외모에 대한 관리를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킨다(박혜원, 2013).

따라서 심리적 웰빙은 개인이 살아감에 있어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여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심리적 웰빙의 구성요소

Ryff(1989)는 자아실현,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 개성화, 성숙, 기본적 삶의 경향, 그리고 성격의 변화 등의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김효실, 2014)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의 6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개발하였다(김석일, 2004). 이러한 척도는 심리적 웰빙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라고 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인 측면의 합을 의미한다(표종현, 2011).

자아수용은 자기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생리적 현상 또는 자신의 느낌, 생각, 행동, 가치관, 성격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며, 정신건강의 중심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자기실현, 최적의 기능, 성숙의 기능의 특징이다(Ryff, 1989). 또한 자아수용은 자신의 모습을 중점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 관찰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지하고 인정하여 보다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김효실, 2014).

긍정적 대인 관계란 적절한 대인 교류를 하는 사회인으로서의 기능과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며(정태호, 2013), 대인 관계를 통해 편안함과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감정적 지지를 얻고 문제에 대한 충고를 받거나 조언을 하여(오근희, 2009)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본인과 타인에 대한 믿음과 타협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김효실, 2014).

자율성이란 독립적이고 결정력이 있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요구되는 생각, 행동 등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감 그리고 개인적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는 특징 등을 의미한다(조한용, 2016). 자율성은 삶에 있어 매 순간마다 최후로 생각하고, 활력이 넘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을 수

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의지를 말한다(양참상, 2006). R yff(1989)는 자율성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인 결단력을 통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라는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으며, 내적 동기로 인한 자신의 행동 조절, 개인적 기준으로 자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환경 통제감(envIRONMENTAL MASTERY)’ 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신의 삶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으로(염계화, 2005) 자신의 행동과 주변의 복잡한 외부환경을 잘 관리 하고 활용하여(조안진, 2014) 개인적인 필요나 가치에 적합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문정희, 2015). 따라서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본인이 처한 주변상황들을 파악하고, 잘 관리하여 복잡한 상황들에 있어 환경들을 통제 또는 조절 하며, 기회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개인의 가치에 맞게 선택하거나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목적은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가지며, 과거와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사는 이유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조안진, 2014), 삶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며, 그 목적에 주도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 정신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Wadsworth & Ford, 1983). 삶의 목적이 부족한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방향감이 부족하고, 지나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신념이나 태도 또한 부족하다(최혜연, 2015).

개인적 성장은 한 개인의 건강한 심리발달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성숙한 인간을 나타내는 심리적 특성으로(정태호,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실현주의적 개념에 가장 밀접한 이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는 개인에게 있어 본

인의 성장 및 발전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실현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전됨을 느낄 수 있다(권오일, 2008).

3) 심리적 웰빙의 선행연구

심리적 웰빙은 인간의 균형 있는 삶을 측정해주는 지표로 심리적 웰빙의 개념을 이용한 분야의 연구는 주로 심리적 웰빙의 선행변수 혹은 후행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유병웅, 2016).

정서적인 측면에서 심리적 웰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과 적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Waterman, 2008)으로 긍정심리자본이나 열정 또는 문제대응방식, 통제위치, 노력 등이 결부되어 지며(Daniels & Guppy, 1994), 또한 개인의 신체반응, 불안과 우울, 사회적 부적응(Diener et al., 2006) 등의 정신적 건강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기분과 정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Edwards, 1992).

긍정적 감정의 존재와 부정적 감정의 부재한 삶의 만족을 포함한 심리적 웰빙은(Diener et al., 1985) 개인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임하고 있는지 반영하는 것이며(Ryff & Keyes, 1995), 자기결정이론 측면에서 최고 높은 감정적 기능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말하고(Ryan & Deci, 2001), 업무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태도와 감정으로써(Diener, 1999)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Warr, 1990).

업무상황에 대한 심리적 웰빙의 영향에 대한 장철승과 정승언(2016)의 연구에 따르면 경영학분야에서 심리적 웰빙이 진성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있어 바른 영향을 주며, 이는 부하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하였고, 남기섭(2017)의 연구에서는 생활의 균형과 이직의도 관계속에서 심리적 웰빙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차경호(2004)는 심리적 웰빙이 높은 삶에 대해 자기 자신을 그대로 포용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에 있어 독립적으로 조절

하는 능력을 가지며, 주변의 환경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실행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삶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심리적 웰빙이 개인의 신체반응, 불안과 우울, 사회적 부적응 등의 정신적 건강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Diener et al., 2006).

시니어 세대 여성의 여가만족의 심리만족과 생리만족 및 교육적 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며(최창현, 광미정, 2015), 여가경험은 삶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개발시키고, 적극적이고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과정으로서 역할을 한다(김원희, 2019).

심리적 웰빙은 여러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있어 심리적 웰빙은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영향을 필요 요소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게 하여(남승미, 2019)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김주연, 2015).

따라서 심리적 웰빙은 사회의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인의 삶에서 정신적, 심리적 기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써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척도라 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심리적 웰빙은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년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현시대에 서 반드시 필요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초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니어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 및 노화불안이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시니어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생의 의미 및 노화불안이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절차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읽지 못하는 시니어 여성은 요원을 통해 읽어주고 답변의 받는 방법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 자료수집

설문지 조사 시기는 2020년 4월 14일~5월 3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700부를 배부하여 694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하고 679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 기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 실시되었다.

첫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변수로 활용하기 위한 공통요인을 찾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한 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및 노화불안이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및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미용성형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50세 이상의 시니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10문항, 노화불안 20문항, 미용성형 15문항, 심리적 웰빙 26문항으로 총 7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가족 동거유형, 보유 종교, 최종 학력, 직업 상태, 월 생활비, 주 소득원, 건강상태, 노후준비상태, 친구 수, 여가·사회활동 상태 등에 관한 12개 문항으로 총 83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에 맞게 선행연구의 설문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들은 모두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1) 생의 의미

생의 의미는 Steger et al.(2004)이 개발하고 원두리 외(2005)가 변안 및 타당화된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MLQ)와 이임순(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의미의 존재, 의미의 추구 등의 2가지 요인으로 총 1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Lasher &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노화불안 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AAS)와 김옥(201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노인심리안정,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 등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3) 미용성형

미용성형은 Hederson-King, D & Hederson-King, E(2005)가 개발한 성형수술 수용도(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ACSS)와 Swami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성형의향, 성형개선만족, 사회타인지향 등의 3가지 요인으로 총 1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심리적 웰빙

심리적 웰빙은 Ryff(1989), 김명소 외(2001), 염계화(2006), 표중현(2011),

정태호(201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 등의 3가지 요인으로 총 26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의 측정도구는 명명척도를 통해 연령, 결혼상태, 가족동거유형, 보유종교, 최종학력, 직업상태, 월 생활비, 주 소득원, 건강상태, 노후준비상태, 친구 수, 여가사회활동상태 등의 총 12가지 하위요인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위의 5가지 항목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 측정 변인 | 하위요인 | 측정 방법 | 문항수 | 출처 |
|--------|--|--------------|-----|---|
| 생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의 존재 · 의미의 추구 | 5점 Likert 척도 | 10 | 원두리 외(2005), 이임순(2019) |
| 노화 불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심리안정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노인의 삶 만족 | 5점 Likert 척도 | 20 | Lasher & Faulkender(1993), 김육(2010) |
| 미용 성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형의향 · 성형개선만족 · 사회타인지향 | 5점 Likert 척도 | 15 | Henderson-King, D & Henderson-King,E (2005), Swami et al.(2011) |
| 심리적 웰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수용 · 계획실현 · 대인관계 | 5점 Likert 척도 | 26 | Ryff, C. D(1989), 김명소 외(2001), 엄계화(2006), 표중현(2011), 정태호(2013) |
| 일반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결혼상태 · 가족동거유형 · 보유종교 · 최종학력 · 직업상태 · 월 생활비 · 주 소득원 · 건강상태 · 노후준비상태 · 친구 수 · 여가사회활동상태 | 명명 척도 | 12 | 연구자 |
| 총 문항 수 | | | | 83 |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총 679명 중 연령별로는 50세~54세가 36.8%로 가장 많았고, 60세~64세 25.9%, 55세~59세 20.8%, 65세 이상 16.5%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 있음’이 74.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별’ 10.9%, ‘이혼 및 별거’ 8.8%, ‘기타’ 6.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동거유형을 살펴보면 ‘부부끼리 동거’가 47.1%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자녀와 동거’가 25.0%, ‘혼자 산다’는 경우가 12.7%, ‘기혼자녀 가족과 동거’가 12.5%, ‘부모님과 동거’가 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유종교를 살펴보면 ‘불교’가 47.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무교’ 20.9%, ‘기독교’ 18.0%, ‘천주교’ 11.5%, ‘기타’ 1.8% 순이었다. 최종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32.5%, ‘고등학교 졸업’ 20.8%, ‘대학원 졸업 이상’ 14.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상태를 보면 ‘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없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월 생활비는 ‘200만원 이상’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200만원 미만’ 21.5%, ‘100~150만원 미만’ 17.5%, ‘100만원 미만’ 14.0% 순으로 나타났다. 주 소득원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61.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용돈 및 기타’ 16.3%,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11.2%, ‘연금소득’ 1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좋다’ 33.0%, ‘나쁘다’ 10.2%, ‘매우 좋다’ 5.0%,

‘매우 나쁘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상태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되어 있다’ 22.1%, ‘잘 되어 있다’ 21.5%, ‘아주 잘 되어 있다’ 14.3%, ‘전혀 되어 있지 않다’ 8.4%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 수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비교적 많은 편’이다 26.8%, ‘비교적 적은 편’이다 19.9%, ‘매우 적은 편’이다 8.2%, ‘많은 편’이다 1.5%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사회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없다’라는 응답은 31.1%로 적게 나타났다.

<표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

N=679(%)

| 구분 | 항목 | 빈도 | 퍼센트 |
|----------|--------------|-----|-------|
| 연령 | 50~54세 | 250 | 36.8 |
| | 55~59세 | 141 | 20.8 |
| | 60~64세 | 176 | 25.9 |
| | 65세 이상 | 112 | 16.5 |
| 결혼상태 | 배우자 있음 | 503 | 74.1 |
| | 이혼/별거 | 60 | 8.8 |
| | 사별 | 74 | 10.9 |
| | 기타 | 42 | 6.2 |
| 가족동거유형 | 혼자 | 86 | 12.7 |
| | 부부 | 320 | 47.1 |
| | 기혼자녀 가족 | 85 | 12.5 |
| | 미혼자녀 | 170 | 25.0 |
| 보유종교 | 부모님 | 18 | 2.7 |
| | 기독교 | 122 | 18.0 |
| | 불교 | 325 | 47.9 |
| | 천주교 | 78 | 11.5 |
| | 무교 | 142 | 20.9 |
| 최종학력 | 기타 | 12 | 1.8 |
| | 중학교 졸업 이하 | 222 | 32.7 |
| | 고등학교 졸업 | 141 | 20.8 |
| | 대학교 졸업 | 221 | 32.5 |
| 직업상태 | 대학원 졸업 이상 | 95 | 14.0 |
| | 있다 | 484 | 71.3 |
| 월 생활비 | 없다 | 195 | 28.7 |
| | 100만원 미만 | 95 | 14.0 |
| | 100~150만원 미만 | 119 | 17.5 |
| | 150~200만원 미만 | 146 | 21.5 |
| | 200만원 이상 | 319 | 47.0 |
| 주소득원 | 연금 | 75 | 11.0 |
| | 근로소득 | 417 | 61.4 |
| | 임대소득/금융소득 | 76 | 11.2 |
| | 자녀용돈/기타 | 111 | 16.3 |
| 건강상태 | 매우 나쁘다 | 7 | 1.0 |
| | 나쁘다 | 69 | 10.2 |
| | 보통이다 | 345 | 50.8 |
| | 좋다 | 224 | 33.0 |
| | 매우 좋다 | 34 | 5.0 |
| 노후준비상태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57 | 8.4 |
| | 조금 되어 있다 | 150 | 22.1 |
| | 보통이다 | 229 | 33.7 |
| | 잘 되어 있다 | 146 | 21.5 |
| | 아주 잘 되어 있다 | 97 | 14.3 |
| 친구 수 | 매우 적은 편이다 | 56 | 8.2 |
| | 비교적 적은 편이다 | 135 | 19.9 |
| | 보통이다 | 296 | 43.6 |
| | 비교적 많은 편이다 | 182 | 26.8 |
| | 많은 편이다 | 10 | 1.5 |
| 여가사회활동상태 | 있다 | 468 | 68.9 |
| | 없다 | 211 | 31.1 |
| 계 | | 679 | 100.0 |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요인분석

1) 생의 의미

생의 의미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의미의 존재, 의미의 추구의 2가지 요인으로 총 1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질문자가 10개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요인 1(40.250%)은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미의 존재’로 명명하였다.

요인 2(30.007%)는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미의 추구’로 명명하였다.

이 두 개의 요인적재 값이 +.6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생의 의미 요인분석

| item | factor | | 공통성 |
|-----------------------------------|--|-------------|------|
| | 의미의 존재 | 의미의 추구 | |
|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 .811 | .255 | .723 |
|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 .809 | .197 | .693 |
|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 .787 | .273 | .694 |
|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 .749 | .291 | .647 |
|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702 | .349 | .614 |
|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281 | .853 | .806 |
|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 .250 | .823 | .740 |
|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 .304 | .781 | .703 |
| 고유값 | 3.220 | 2.401 | |
| 분산(%) | 40.250 | 30.007 | |
| 누적(%) | 40.250 | 70.258 | |
| 신뢰도(Cronbach's <i>a</i>) | .876 | .832 | |
| 전체신뢰도 | .893 | | |
| KMO와 Bartlett 검정 | KMO=.886, $\chi^2=2,816.700$ $p<.000$ | | |

*** $p<.001$

2) 노화불안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 1(28.506%)은 나는 노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 나는 나이 드신 친척 분 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나는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인심리안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8.912%)는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 봐 두렵다,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나는 노년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 봐 두렵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8.371%)은 나는 노년이 되었을 때 삶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노년기에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인의 삶 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이 세 개의 요인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 0.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노화불안 요인분석

| item | factor | | | 공통성 |
|--|------------------------------|------------------|----------------|----------|
| | 노인 심리 안정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노인의 삶 만족 | |
| 나는 노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R). | .853 | .002 | .088 | .735 |
| 나는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R). | .839 | -.059 | .078 | .713 |
| 나는 나이 드신 친척 분 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R). | .808 | .048 | .012 | .655 |
|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R). | .781 | .003 | .075 | .616 |
| 나는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다(R). | .633 | -.005 | .362 | .532 |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 을까 봐 두렵다. | .000 | .836 | .112 | .712 |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까봐 걱정된다. | -.070 | .819 | .140 | .695 |
| 나는 노년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 봐 두렵 다. | .054 | .796 | .143 | .657 |
| 나는 노년이 되었을 때 삶이 좋을 것으로 기대 한다(R). | .075 | .201 | .820 | .718 |
| 나는 노년기에 할 일이 많을 것이다(R). | .141 | .060 | .763 | .606 |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 낄 것 같다(R). | .095 | .164 | .750 | .599 |
| 고유값 | 3.136 | 2.080 | 2.021 | |
| 분산(%) | 28.506 | 18.912 | 18.371 | |
| 누적(%) | 28.506 | 47.418 | 65.788 | |
| 신뢰도(Cronbach's <i>a</i>) | .853 | .772 | .725 | |
| 전체신뢰도 | | | | .768 |
| KMO와 Bartlett 검정 | KMO=.813, $\chi^2=2,591.351$ | | | $p<.000$ |

*** $p<.001$

3) 미용성형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요인 1(32.126%)은 나는 가끔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만약 내가 고통을 알지만 나쁜 부작용이 없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무료로 수술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나는 성형수술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 내 파트너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면 나는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형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26.975%)는 성형수술은 사람들의 자아상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외모에 대해 몇 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사소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성형수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더욱 좋게 느끼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나는 젊어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만약 수술이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다, 간단한 성형수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볼 생각을 할 것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형개선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21.469%)은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를 더 매력적으로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수술을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만약 간단한 미용 시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수술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이 세 개의 요인적재 값이 ± 0.7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미용성형 요인분석

| item | factor | | | 공통성 |
|--|------------------------------|----------------|-------------|----------|
| | 성형 의향 | 성형 개선 만족 | 타인 지향 | |
| 나는 가끔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793 | .336 | .267 | .813 |
| 만약 내가 고통을 알지만 나쁜 부작용이 없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 .757 | .363 | .404 | .868 |
| 무료로 수술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 .755 | .308 | .364 | .797 |
| 나는 성형수술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R) | .736 | .391 | .242 | .753 |
|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 | .733 | .379 | .345 | .800 |
| 내 파트너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면 나는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 .610 | .288 | .398 | .813 |
| 성형수술은 사람들의 자아상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 .255 | .835 | .228 | .814 |
| 외모에 대해 몇 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사소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 .427 | .758 | .227 | .809 |
| 성형수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더욱 좋게 느끼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 .392 | .674 | .361 | .738 |
| 나는 젊어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 .375 | .582 | .444 | .761 |
| 만약 수술이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다 | .418 | .569 | .366 | .819 |
| 간단한 성형수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볼 생각을 할 것이다 | .449 | .566 | .347 | .821 |
|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를 더 매력적으로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수술을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 .326 | .265 | .832 | .870 |
| 만약 간단한 미용 시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수술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 | .406 | .327 | .601 | .803 |
| 고유값 | 4.498 | 3.776 | 3.006 | |
| 분산(%) | 32.126 | 26.975 | 21.469 | |
| 누적(%) | 32.126 | 59.100 | 80.570 | |
| 신뢰도(Cronbach's α) | .948 | .938 | .817 | |
| 전체신뢰도 | | | | .969 |
| KMO와 Bartlett 검정 | KMO=.969, $\chi^2=9,729.849$ | | | $p<.000$ |

*** $p<.001$

4) 심리적 웰빙

시니어 세대 여성의 심리적 웰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다.

요인 1(25.868%)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을 때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만족한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은 크게 발전했다, 나는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세웠던 목표가 돌이켜보면 현재의 바탕이 되었다,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갈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아수용’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9.020%)는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삶의 목표를 세워 하루하루 계획성 있게 살아간다, 미래의 계획을 짜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획실현’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8.186%)은 남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많다, 나의 고민을 털어 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로 명명하였다.

이 세 개의 요인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 0.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심리적 웰빙 요인분석

| item | factor | | | 공통성 |
|--|-------------|------------------------------|-------------|------|
| | 자아 수용 | 계획 실현 | 대인 관계 | |
|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을 때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 도 있었지만 만족한다 | .784 | .156 | .246 | .699 |
|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은 크게 발전했 다 | .771 | .281 | .174 | .703 |
| 나는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 .701 | .335 | .319 | .706 |
|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668 | .281 | .278 | .603 |
| 과거에 세웠던 목표가 돌이켜보면 현재의 바탕 이 되었다 | .637 | .452 | .171 | .639 |
|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 .569 | .453 | .329 | .638 |
|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 .523 | .317 | .390 | .526 |
|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갈 수 있다 | .513 | .373 | .437 | .593 |
|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 .270 | .728 | .120 | .617 |
|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때 잘 처리 해 나갈 수 있다 | .239 | .720 | .247 | .636 |
| 삶의 목표를 세워 하루하루 계획성 있게 살아 간다 | .277 | .682 | .242 | .600 |
| 미래의 계획을 짜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을 즐긴다 | .328 | .594 | .378 | .603 |
| 남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 | .045 | .354 | .769 | .719 |
|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많다 | .318 | .226 | .692 | .631 |
| 나의 고민을 털어 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 | .391 | .081 | .692 | .638 |
|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 한다 | .395 | .228 | .577 | .540 |
| 고유값 | 4.139 | 3.043 | 2.910 | |
| 분산(%) | 25.868 | 19.020 | 18.186 | |
| 누적(%) | 25.868 | 44.888 | 63.074 | |
| 신뢰도(Cronbach's α) | .912 | .795 | .788 | |
| 전체신뢰도 | | .937 | | |
| KMO와 Bartlett 검정 | | KMO=.958, $\chi^2=5,878.615$ | $p<.000$ | |

*** $p<.001$

3.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된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표 7>은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시행한 결과로써 미용성형의 모든 변수는 노화불안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불안 중 ‘노인심리안정’ 변수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과 ‘타인지향’변수는 노화불안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의 삶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삶 만족’변수에만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변수는 생의 의미 중 ‘의미의 발견’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의 추구’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노화불안 중 ‘노인심리안정’과 ‘노인에 대한 두려움’변수는 서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모든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7> 상관관계분석

| 구분 | 평균 | 표준 편차 | 의미의 존재 | 의미의 추구 | 노인 심리 안정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노인의 삶 만족 | 성형 의향 | 성형 개선 만족 | 타인 지향 | 자아 수용 | 계획 실현 | 대인 관계 |
|---------------|------|----------|-----------|-----------|----------------|------------------|----------------|----------|----------------|----------|----------|----------|----------|
| 의미의 존재 | 3.63 | .707 | 1 | | | | | | | | | | |
| 의미의 추구 | 3.78 | .698 | .614** | 1 | | | | | | | | | |
| 노인심리안정 | 2.98 | .683 | -.087* | -.103** | 1 | | | | | |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2.98 | .841 | -.131** | -.225** | .013 | 1 | | | | | | | |
| 노인의삶만족 | 2.65 | .714 | -.397** | -.502** | .272** | .323** | 1 | | | | | | |
| 성형의향 | 3.27 | 1.028 | .103** | .128** | .018 | .133** | -.087* | 1 | | | | | |
| 성형개선만족 | 3.37 | .915 | .110** | .104** | .044 | .165** | -.060 | .850** | 1 | | | | |
| 타인지향 | 3.34 | 1.009 | .113** | .066 | .011 | .160** | -.053 | .807** | .844** | 1 | | | |
| 자아수용 | 3.51 | .702 | .498** | .637** | -.152** | -.220** | -.570** | .212** | .229** | .169** | 1 | | |
| 계획실현 | 3.59 | .643 | .485** | .607** | -.165** | -.196** | -.459** | .180** | .173** | .139** | .751** | 1 | |
| 대인관계 | 3.40 | .688 | .402** | .522** | -.219** | -.205** | -.493** | .149** | .173** | .129** | .734** | .651** | 1 |

* $p < .05$, ** $p < .01$, *** $p < .001$

4.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의 차이분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8>을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생의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의미의 존재의 연령별 차이는 '50세~5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순차적으로 '65세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미의 추구의 연령별 차이는 '55세~5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65세 이상'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65세 시니어 여성이 의미의 존재 및 의미의 추구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55세~59세의 여성들이 65세 이상 시니어 세대 여성들보다 공적, 가정적인 위치에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해결해야 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체력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가치와 살아감에 대한 목적의식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의 변화와 폐경기로 인해 자신의 일부분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며, 성역할의 상실, 어머니로서의 역할소진, 사회적 가치의 감퇴라고 지각할수록 깊은 상실감에 빠진다는 정미경(2008)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반면 Reker & Fry(2003)은 삶의 의미와 행복의 상관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남편의 사별, 건강의 악화 등이 원인으로 포함된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정신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신감 및 자

존감 하락으로 인해 삶에 전반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건강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의미의 존재의 건강상태별 차이는 ‘매우 좋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나쁘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미의 추구의 건강상태별 차이는 ‘매우 좋다’가 가장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매우 나쁘다’라는 결과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정미경(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정미경(2008)은 중년기의 개인건강상태는 고독감, 자아존중감, 위기감, 우울증을 예측해주는 가장 주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건강상태가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우울과 생의 의미가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윤진, 김금중(2017)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 생의 의미가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참여가 노인의 우울을 줄이고, 건강 증진 행위 및 생의 의미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 대상자가 사회적 참여를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건강증진을 통해 노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건강의 악화가 전반적인 삶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 정신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에 있어 건강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써 악화된 건강은 의미의 추구와 의미의 존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건강할수록 심리적 안정을 포함한 노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노후준비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사후분석에서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의 노후준비상태별 차이는 ‘잘 되어 있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유진(2005)의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강유진(2005)은 30대~50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의견을 연구 한 결과 노후준비에 대해 중요한 부분은 건강문제가 49.5%의 비율로 나타났다 하였고, 경제문제가 44.5%의 비율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에게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연령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40대’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강유진(2005)은 최근 현대 사회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노인 뿐 아니라 노년기 이전 세대까지 확산되고 있고,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현실적 여건이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후대비는 건강문제와 경제문제를 제기해야하며,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개인적인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노후대비는 생의 의미에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친구 수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사후분석에서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의 친구 수별 차이는 ‘매우 많은 편이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매우 적은 편이다’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친구는 외부활동을 통한 활동적인 사교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가치 및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요소로써 삶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여가사회활동 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p < .001$), 사후분석에서 모든 요인에서 여가사회활동상태별 차이는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없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를 연구한 김은아(1992)의 주장과 부분일치 하는 것으로 김은아(1992)는 자발적 단체 활동을 통해 자기 수용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이갑숙, 임왕규(2012)은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가활동 변수에서는 생산적 여가활동($\beta = .225, p < .01$), 소비적 여가활동($\beta = .094, p < .05$)의 두 변수 모두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활동이 노인들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에 기여한다는 결과라 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종합해보면 여가와 사회활동을 하면서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자기존재에 대해 확인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 여가사회활동은 생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인생 전반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특성 차이분석

| 일반적 특성 | | 생의 의미 | 의미의 존재 | 의미의 추구 |
|------------|--------------------------|------------|--------|--|
| | | 전 체 | | |
| 연령 | 50~54세 ^a | 3.80 | 3.63 | 3.78 |
| | 55~59세 ^b | 3.63 | | 3.97 |
| | 60~64세 ^c | 3.58 | | 3.91 |
| | 65세 이상 ^d | 3.33 | | 3.64 |
| | F | 12.406*** | | 3.43 |
| | 사후분석 | a>c>d, b>d | | 20.898*** |
| 건강 상태 | 매우 나쁘다 ^a | 2.97 | | a>d, a>c, b>d, b>c |
| | 나쁘다 ^b | 3.06 | | |
| | 보통이다 ^c | 3.60 | | |
| | 좋다 ^d | 3.81 | | |
| | 매우 좋다 ^e | 3.94 | | |
| | F | 20.100*** | | 33.300*** |
| 노후 준비 상태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a | 3.07 | | d>c>b, e>a, e>b, d>a |
| | 조금 되어 있다 ^b | 3.54 | | e>d>c>a, e>d>c>b |
| | 보통이다 ^c | 3.72 | | |
| | 잘 되어 있다 ^d | 3.83 | | |
| | 아주 잘 되어 있다 ^e | 3.58 | | |
| | F | 14.297*** | | 19.856*** |
| 친구 수 | 매우 적은 편이다 ^a | 3.23 | | d>b>a, c>a, e>a |
| | 비교적 적은 편이다 ^b | 3.46 | | d>b>a, d>c>a, d>e>a |
| | 보통이다 ^c | 3.64 | | |
| | 비교적 많은 편이다 ^d | 3.83 | | |
| | 많은 편이다 ^e | 4.04 | | |
| | F | 11.761*** | | 26.253*** |
| 여가 사회활동 상태 | 있다 ^a | 3.79 | | e>a, d>a, e>b, c>a, d>b, b>a, d>c, c>b |
| | 없다 ^b | 3.27 | | |
| | t | 8.304*** | | 8.096*** |
| | 평균비교 | a>b | | a>b |

*** p<.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9>를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노화불안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1$).

사후분석에서 노인심리안정의 연령별 차이는 '50세~54세'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65세 이상'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의 삶 만족의 연령별 차이는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50세~54세'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노화불안에 따른 연령별 차이는 중년기 노화불안 척도 개발 및 노화불안과 웰에이징의 관계 모형 검증한 오은아(2019)와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를 한 김옥(2010)의 연구결과와 중·장년층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치매예방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화불안과 치매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양은미(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들의 공통된 연구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으로써의 외모의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이며, 질병 및 배우자 상실 등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건강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노인심리안정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사후분석에서 노인에 대한 두려움의 건강상태별 차이는 '나쁘다'가 가장 높았고, '좋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의 삶 만족의 건강상태별 차이는 '나쁘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매우 좋다'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김신미, 김순이(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김신미, 김순이(2009)는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은 건강상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F = 10.25, p = .000$),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노화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신체노화와 더불어 건강의 상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현재보다 신체와 정신, 심리, 사회적 부분들이 더 노화될 것을 걱정하고, 노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생활에 있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할 것이며,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추측과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노후준비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노인심리안정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노인에 대한 두려움의 노후준비상태별 차이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가장 높았고, ‘잘 되어 있다’가 가장 낮았다. 노인의 삶 만족의 노후준비상태별 차이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고, ‘잘 되어 있다’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 및 노화관련 특성과 노화불안 상관관계에서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고, 노후준비가 부족할 때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난 김옥(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해성(2014), 정주희(2020)의 연구에서도 노후준비가 노화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후준비가 경제적 능력과 연결되어 노후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과 미래의 노후기간에 발생하는 건강상실과, 퇴직으로 인한 부족한 생활비 등에 따라 나타나는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친구 수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1$).

사후분석에서 노인심리안정의 친구 수별 차이는 ‘매우 적은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많은 편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

의 친구 수별 차이는 ‘매우 많은 편이다’와 ‘매우 적은 편이다’가 동일한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많은 편이다’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노인의 삶 만족의 친구 수별 차이는 ‘매우 적은 편이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많은 편이다’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성기옥(2016), 김유진(2017), 서대석(2018)의 노화불안이 대인관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나이가 들에 있어 친구의 사망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이 심리적으로 우울함을 가져올 수 있고, 신체적 노화나 사회·경제적 노화에 따라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여가사회활동 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p < .05$), 사후분석에서 모든 요인에서 여가사회활동상태별 차이는 ‘없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있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신미, 김순이(2008)와 성기옥(2016), 유숙자(2017), 김유진(2017), 서대석(2018)은 여가사회활동은 노화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노화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본인의 모습을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피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표 9>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특성 차이분석

| 일반적 특성 | | 노화불안 | 노인심리안정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노인의 삶 만족 |
|------------|--------------------------|------|----------|---------------|-----------------------------|
| | | 전 체 | | | |
| 연령 | 전 체 | | 2.98 | 2.98 | 2.65 |
| | 50~54세 ^a | | 3.07 | 2.87 | 2.49 |
| | 55~59세 ^b | | 2.93 | 2.88 | 2.60 |
| | 60~64세 ^c | | 3.02 | 3.03 | 2.75 |
| | 65세 이상 ^d | | 2.77 | 3.24 | 2.93 |
| | F | | 5.628** | 5.930** | 11.644*** |
| | 사후분석 | | a>d, c>d | d>a, d>b | d>a, d>b, c>a |
| 건강 상태 | 매우 나쁘다 ^a | | 2.86 | 3.43 | 3.52 |
| | 나쁘다 ^b | | 3.06 | 3.55 | 3.11 |
| | 보통이다 ^c | | 2.93 | 3.01 | 2.69 |
| | 좋다 ^d | | 3.03 | 2.76 | 2.50 |
| | 매우 좋다 ^e | | 2.97 | 2.80 | 2.23 |
| | F | | 1.090 | 13.494*** | 16.838*** |
| | 사후분석 | | - | b>c>d, b>e | a>c>d, b>c>d, a>e, b>e, c>e |
| 노후 준비 상태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a | | 3.05 | 3.31 | 3.19 |
| | 조금 되어 있다 ^b | | 3.01 | 3.14 | 2.75 |
| | 보통이다 ^c | | 2.95 | 2.95 | 2.59 |
| | 잘 되어 있다 ^d | | 2.91 | 2.75 | 2.41 |
| | 아주 잘 되어 있다 ^e | | 3.06 | 2.94 | 2.72 |
| | F | | 1.060 | 6.550*** | 14.822*** |
| | 사후분석 | | - | d>a, d>b | a>e>d, a>b>d, a>c, a>b |
| 친구 수 | 매우 적은 편이다 ^a | | 3.23 | 3.30 | 3.07 |
| | 비교적 적은 편이다 ^b | | 3.07 | 3.18 | 2.90 |
| | 보통이다 ^c | | 2.95 | 2.93 | 2.64 |
| | 비교적 많은 편이다 ^d | | 2.88 | 2.79 | 2.38 |
| | 많은 편이다 ^e | | 2.70 | 3.30 | 2.37 |
| | F | | 4.003** | 7.198*** | 17.650*** |
| | 사후분석 | | d>a | d>a, d>b, c>a | d>a, d>b, c>a, c>b, d>c |
| 여가 사회활동 상태 | 있다 ^a | | 2.94 | 2.91 | 2.52 |
| | 없다 ^b | | 3.06 | 3.13 | 2.95 |
| | t | | -2.133* | -3.258** | -7.200*** |
| | 평균비교 | | b>a | b>a | b>a |

** $p < .01$,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0>을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미용성형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의 모든 요인에서 '50세~54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65세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영희 외(2018)의 연구와 이윤경(200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시니어 세대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용성형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며, 비수술적, 수술적 미용술을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의 유지이자 자아존중감을 통한 사회적 만남의 실행이라는 이윤경(2005)의 주장에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최미혜(2007), 김성희(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연령이 높을수록 미용성형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자기개념이 나이가 어릴수록 외적인 모습이 더욱 매력을 느껴 외모에 자기개념 비중이 큰 차이를 하고, 퇴직을 기점으로 사회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연령대일수록 미용성형을 통한 외모개선을 시도하는 미적욕구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외모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사회적 지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미용성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건강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성형의향요인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p < .05$),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에서 건강상태별 구분에 따른 성형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성형개선만족, 타인지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형의향의 경우 건강상태가 나쁜 시니어 세대 여성들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이 높은 결과를 가졌다. 이는 김은영(2017)의 건강

하지 못한 노인이 외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써 시니어 세대 여성의 건강이 상실되는 경우 삶의 의욕과 심리적 안정감을 저하시켜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신체는 삶의 전반에 있어 활력을 주고, 활력으로 인한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준비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성형의향 요인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p < .05$),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후분석에서 성형의향의 노후준비상태별 차이만 ‘조금 되어 있다’가 가장 높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노후준비상태에 따른 성형개선만족과 타인지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후준비상태는 부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 특성으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친구 수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미용성형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는 행위로 간주해볼 수 있으며, 이는 현시대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시니어 세대의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여가사회활동 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1$). 사후분석에서 모든 요인에서 여가사회활동상태별 차이는 ‘있다’, ‘없다’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은아(2015)와 이영희 외(2018)의 연구에서 주장한 내용과 부분 일치하는 결과로써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있어 여가사회활동은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고, 미용성형을 통한 사회적인 수용성의 증가와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타인에게 호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생활전반에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의료행위수단이기에 때문에 시니어 여성들의 여가사회활동은 미용성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용성형 특성 차이분석

| 일반적 특성 | | 미용성형 | 성형의향 | 성형개선만족 | 타인지향 |
|------------|--------------------------|---------------|---------------|----------|------|
| | | 전 체 | | | |
| 연령 | 50~54세 ^a | 3.52 | 3.56 | 3.56 | 3.56 |
| | 55~59세 ^b | 3.11 | 3.38 | 3.24 | 3.24 |
| | 60~64세 ^c | 3.20 | 3.31 | 3.33 | 3.33 |
| | 65세 이상 ^d | 3.01 | 3.05 | 3.01 | 3.01 |
| | F | 8.811*** | 8.785*** | 8.602*** | |
| | 사후분석 | a>d, a>b, a>c | a>d, a>c, b>d | a>d, a>b | |
| 건강 상태 | 매우 나쁘다 ^a | 3.21 | 3.19 | 2.86 | |
| | 나쁘다 ^b | 3.03 | 3.17 | 3.15 | |
| | 보통이다 ^c | 3.24 | 3.36 | 3.35 | |
| | 좋다 ^d | 3.42 | 3.48 | 3.44 | |
| | 매우 좋다 ^e | 3.05 | 3.23 | 3.18 | |
| | F | 2.576* | 1.868 | 1.778 | |
| 노후 준비 상태 | 사후분석 | - | - | - | |
|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a | 2.98 | 3.20 | 3.20 | |
| | 조금 되어 있다 ^b | 3.48 | 3.48 | 3.51 | |
| | 보통이다 ^c | 3.22 | 3.33 | 3.30 | |
| | 잘 되어 있다 ^d | 3.30 | 3.38 | 3.33 | |
| | 아주 잘 되어 있다 ^e | 3.15 | 3.39 | 3.29 | |
| F | 3.303* | 1.109 | 1.514 | | |
| 친구 수 | 사후분석 | b>a | - | - | |
| | 매우 적은 편이다 ^a | 3.04 | 3.17 | 3.15 | |
| | 비교적 적은 편이다 ^b | 3.25 | 3.40 | 3.41 | |
| | 보통이다 ^c | 3.18 | 3.33 | 3.26 | |
| | 비교적 많은 편이다 ^d | 3.46 | 3.46 | 3.47 | |
| | 많은 편이다 ^e | 3.88 | 3.77 | 3.75 | |
| F | 3.829** | 1.738 | 2.209 | | |
| 여가 사회활동 상태 | 사후분석 | - | - | - | |
| | 있다 ^a | 3.36 | 3.45 | 3.44 | |
| | 없다 ^b | 3.05 | 3.20 | 3.13 | |
| | t | 3.492** | 3.233** | 3.559*** | |
| 상태 | 평균비교 | a>b | a>b | a>b | |

* $p<.05$, ** $p<.01$, *** $p<.001$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 특성 차이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1>을 살펴보면, 각 집단별로 심리적 웰빙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구분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모든 요인에서 연령별차이는 '50세~54세'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65세 이상'이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김명소 외(2001)의 연령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의 차이는 자율성과 환경지배력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령이 많은 시니어 세대 여성보다 연령이 적은 시니어 세대 여성이 더욱 독립적이고, 사회생활에 있어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개인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획득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건강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의 건강상태별 차이는 '매우 좋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낮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년기의 신체활동 참여와 심리적 안녕감과 성공적 노화에 대해 연구한 양춘호(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건강의 악화는 신체활동을 제제하고 더불어 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노후준비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자아수용과 계획실현 및 대인관계 요인 모두에 대한 노후준비상태별 차이는 '잘 되어 있다'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염인숙(201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나타냈고 이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며, 심리적 웰빙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수용하고 미래를 위한 삶을 계획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친구 수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자아수용 및 계획실행 요인에 대한 친구 수별 차이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적은 편이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에 속한 시니어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모습들을 독립적이고 개성이 있는 주체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생성하고 지속하며, 생활환경에 있어 결정력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여 생활 전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여가사회활동 상태별 구분의 경우에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사후분석에서 모든 요인에서 여가사회활동상태별 차이는 '있다', '없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차경호(2004)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주장과 일치하며, 심리적 웰빙이 높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외부활동에 의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본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조절하여 대인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유지하여 여가사회활동을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 특성 차이분석

| 일반적 특성 | | 심리적 웰빙 | | | |
|------------------|--------------------------|------------------------------|-------------------------------|---------------|--|
| | | 자아수용 | 계획실현 | 대인관계 | |
| 전 체 | | 3.51 | 3.59 | 3.40 | |
| 연령 | 50~54세 ^a | 3.70 | 3.70 | 3.52 | |
| | 55~59세 ^b | 3.61 | 3.62 | 3.48 | |
| | 60~64세 ^c | 3.35 | 3.53 | 3.30 | |
| | 65세 이상 ^d | 3.20 | 3.40 | 3.21 | |
| | F | 18.477*** | 6.531*** | 7.539*** | |
| | 사후분석 | a>d, a>c, b>d, b>c | a>d | a>d, b>d, a>c | |
| 건강 상태 | 매우 나쁘다 ^a | 2.79 | 3.00 | 2.64 | |
| | 나쁘다 ^b | 3.00 | 3.23 | 2.97 | |
| | 보통이다 ^c | 3.44 | 3.53 | 3.35 | |
| | 좋다 ^d | 3.73 | 3.76 | 3.57 | |
| | 매우 좋다 ^e | 3.86 | 3.99 | 3.80 | |
| | F | 22.035*** | 16.233*** | 17.032*** | |
| 사후분석 | d>c>b, e>a, d>a | d>c>b, e>a, e>d, e>c, d>a | e>c>b, d>c>b, e>a, d>a | | |
| 노후 준비 상태 | 전혀 되어 있지 않다 ^a | 2.75 | 3.04 | 2.92 | |
| | 조금 되어 있다 ^b | 3.35 | 3.55 | 3.27 | |
| | 보통이다 ^c | 3.55 | 3.58 | 3.44 | |
| | 잘 되어 있다 ^d | 3.88 | 3.93 | 3.68 | |
| | 아주 잘 되어 있다 ^e | 3.50 | 3.51 | 3.39 | |
| | F | 35.090*** | 23.544*** | 15.759*** | |
| 사후분석 | d>b>a, d>c>a, d>e>a | d>b>a, d>c>a, d>e>a | d>b>a, d>c>a, d>e>a | | |
| 친구 수 | 매우 적은 편이다 ^a | 2.95 | 3.12 | 2.78 | |
| | 비교적 적은 편이다 ^b | 3.31 | 3.42 | 3.05 | |
| | 보통이다 ^c | 3.52 | 3.61 | 3.47 | |
| | 비교적 많은 편이다 ^d | 3.78 | 3.83 | 3.72 | |
| | 많은 편이다 ^e | 3.84 | 3.95 | 3.78 | |
| | F | 21.207*** | 18.813*** | 38.882*** | |
| 사후분석 | d>c>a, d>b>a, e>a | d>c>a, d>b>a, e>a | e>d>c>a, e>d>c>b, e>b>a | | |
| 여가 사회활동 상태 | 있다 ^a | 3.69 | 3.72 | 3.56 | |
| | 없다 ^b | 3.11 | 3.31 | 3.05 | |
| | t | 9.692*** | 7.431*** | 8.964*** | |
| 상태 | 평균비교 | a>b | a>b | a>b | |

* $p<.05$, ** $p<.01$, *** $p<.001$

5.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 및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대한 생의 의미 중 ‘의미의 추구’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미의 존재’ 요인은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개선만족’에 대한 생의 의미의 ‘의미의 존재’ 요인과 ‘의미의 추구’ 요인은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지향’에 대한 생의 의미의 ‘의미의 존재’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으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미의 추구’ 요인은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생의 의미는 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시니어 여성들은 개인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외모의 개선을 위한 미용성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맞춰 미용성형은 시니어 세대 여

성의 자존감과 사회적 위치의 상승으로 이어주고 있다. 이는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미용성형의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며, 미용성형이 사회적 수용성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직업선택에 대한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혼과 같은 인생의 변화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 할 수 있다.

<표 12>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 (상수) | 2.481 | .234 | | 10.612 | .000*** |
| 성형 의향 | 의미의 존재 | .056 | .070 | .039 | .803 | .422 |
| | 의미의 추구 | .153 | .071 | .104 | 2.153 | .032* |
| | | R=.132 | R ² =.017 | F=5.950** | | |
| 미 용 성 형 | (상수) | 2.733 | .208 | | 13.122 | .000*** |
| | 의미의 존재 | .096 | .063 | .074 | 1.532 | .126 |
| | 의미의 추구 | .077 | .063 | .059 | 1.217 | .224 |
| | | R=.120 | R ² =.014 | F=4.915** | | |
| 타인 지향 | (상수) | 2.770 | .230 | | 12.049 | .000*** |
| | 의미의 존재 | .166 | .069 | .116 | 2.400 | .017* |
| | 의미의 추구 | -.007 | .070 | -.005 | -.103 | .918 |
| | | R=.113 | R ² =.013 | F=4.390* | | |

* $p < .05$, ** $p < .01$, *** $p < .001$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 요인에 대한 생의 의미의 ‘의미의 존재’ 요인과 ‘의미의 추구’ 요인의 유의성은 $p<.001$ 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 요인에 대한 ‘의미의 존재’ 요인과 ‘의미의 추구’ 요인은 $p<.001$ 유의수준으로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대한 생의 의미 중 ‘의미의 추구’ 요인은 $p<.001$ 유의수준에서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의 존재’ 요인은 $p<.01$ 유의수준으로 ‘대인관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생의 의미는 심리적 웰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승미(201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남승미(2019)는 중년기를 대상으로 여가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의미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Steger et al.(2006)의 생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을 통해 자존감과 낙관적인 성격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이는 본 연구자의 결과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엄동춘 외(2012)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와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은 생의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도전과 함께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여 삶 전반에 심리적인 안녕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생의 의미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자 아 수 용 | (상수) | .868 | .122 | | 7.109 | .000*** |
| | 의미의 존재 | .170 | .037 | .172 | 4.645 | .000*** |
| | 의미의 추구 | .534 | .037 | .531 | 14.358 | .000*** |
| | | R=.651 | R ² =.424 | F=248.758*** | | |
| 심 리 적 계 획 실 현 | (상수) | 1.269 | .115 | | 11.017 | .000*** |
| | 의미의 존재 | .163 | .035 | .180 | 4.719 | .000*** |
| | 의미의 추구 | .458 | .035 | .497 | 13.041 | .000*** |
| | | R=.624 | R ² =.389 | F=215.240*** | | |
| 웰 빙 대 인 관 계 | (상수) | 1.294 | .134 | | 9.685 | .000*** |
| | 의미의 존재 | .127 | .040 | .131 | 3.174 | .002** |
| | 의미의 추구 | .435 | .041 | .441 | 10.681 | .000*** |
| | | R=.532 | R ² =.283 | F=133.200*** | | |

* $p < .05$, ** $p < .01$, *** $p < .001$

(3)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에 대한 노화불안의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심리안정’요인은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에 대한 노화불안의 ‘노인에 대한 두려움’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심리안정’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에 대한 노화불안의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심리안정’ 요인은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미용성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인의 삶 만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노화에 따른 젊음의 상실, 외모의 변화, 신체형태의 변화 등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는 자기만족 및 타인의 시선 및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 간주해볼 수 있다.

김유진(2017)은 중년기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노화불안, 가족건강성, 대인관계에 따른 중년의 위기감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중년의 외모에 대한 걱정은 중년기 위기감에 영향을 미치고, 중년남성보다 중년여성이 외모에 대한 걱정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는 외모에 대한 걱정이 여성매력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여성의 외모는 가부장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14>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성형 의향 | (상수) | 2.948 | .228 | | 12.926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91 | .059 | .060 | 1.533 | .126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225 | .049 | .184 | 4.612 | .000*** |
| | 노인의삶만족 | -.235 | .060 | -.163 | -3.928 | .000*** |
| | | R=.199 | R ² =.040 | F=9.325*** | | |
| 미 용 성 형 | (상수) | 2.867 | .202 | | 14.191 | .000*** |
| | 노인심리안정 | .111 | .052 | .083 | 2.108 | .035*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231 | .043 | .213 | 5.342 | .000*** |
| | 노인의삶만족 | -.193 | .053 | -.151 | -3.640 | .000*** |
| | | R=.219 | R ² =.048 | F=11.290*** | | |
| 타인 지향 | (상수) | 2.920 | .224 | | 13.046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65 | .058 | .044 | 1.118 | .264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241 | .048 | .201 | 5.027 | .000*** |
| | 노인의삶만족 | -.183 | .059 | -.130 | -3.124 | .002** |
| | R=.199 | R ² =.039 | F=9.249*** | | | |

* $p < .05$, ** $p < .01$, *** $p < .001$

(4)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대한 ‘노인심리안정’ 요인과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대한 ‘노인 삶 만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대한 노화불안 중 ‘노인의 삶 만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심리 안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노화불안은 살아감에 있어 생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시대의 수명연장으로 인한 늘어난 노후기간과 빠른 퇴직, 충분하게 주어지는 여가시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이는 임금선, 김현실(2012)의 노인의 우울에 대한 연구결과와 양옥지, 이수림(2020)의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써 공통된 연구결과는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 상관이 있었고,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

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노화불안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부적 상관이 있고, 경제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달라지며,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니어 세대 여성일수록 타인과의 거리는 멀어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15>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자아 수용 | (상수) | 5.059 | .130 | | 38.836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00 | .034 | .000 | -0.008 | .994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34 | .028 | -.041 | -1.211 | .226 |
| | 노인의삶만족 | -.547 | .034 | -.557 | -16.019 | .000*** |
| | | R=.572 | R ² =.327 | F=109.175*** | | |
| 심 리 적 웰 빙 | (상수) | 4.879 | .129 | | 37.857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46 | .033 | -.049 | -1.369 | .171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44 | .028 | -.057 | -1.581 | .114 |
| | 노인의삶만족 | -.384 | .034 | -.427 | -11.371 | .000*** |
| | | R=.464 | R ² =.215 | F=61.656*** | | |
| 대인 관계 | (상수) | 4.980 | .134 | | 37.033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98 | .035 | -.097 | -2.804 | .005** |
| | | -.048 | .029 | -.059 | -1.682 | .093 |
| | 노인의삶만족 | -.431 | .035 | -.447 | -12.222 | .000*** |
| | | R=.504 | R ² =.254 | F=76.623*** | | |

** $p < .01$, *** $p < .001$

(5)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와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대한 미용성형의 ‘성형의향’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대한 미용성형의 모든 요인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인관계’에 대한 미용성형의 ‘성형개선만족’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은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형개선만족이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경환, 이상익(2001)의 연구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은 환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Edgerton et al.(1991)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미용성형 수술환자를 추적조사를 한 결과 6년 후 전체 환자 중 73.8%의 환자에게서 심리적인 호전의 결과물을 밝혔다. 이는 미용성형이 외모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은 미용성형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찾으며,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에 놓인 현시대에서 개성이 강한 독립적인 여성으로써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6>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자아 수용 | (상수) | 2.926 | .101 | | 29.074 | .000*** |
| | 성형의향 | .068 | .051 | .100 | 1.341 | .180 |
| | 성형개선만족 | .188 | .063 | .245 | 2.970 | .003** |
| | 타인지향 | -.083 | .051 | -.119 | -1.613 | .107 |
| | | R=.239 | R ² =.057 | F=13.691*** | | |
| 심 리 적 웰 빙 | (상수) | 3.188 | .093 | | 34.172 | .000*** |
| | 성형의향 | .088 | .047 | .140 | 1.852 | .065 |
| | 성형개선만족 | .079 | .059 | .113 | 1.353 | .176 |
| | 타인지향 | -.044 | .047 | -.070 | -.936 | .350 |
| | | R=.187 | R ² =.035 | F=8.159*** | | |
| 대인 관계 | (상수) | 2.970 | .100 | | 29.688 | .000*** |
| | 성형의향 | .021 | .051 | .031 | .410 | .682 |
| | 성형개선만족 | .155 | .063 | .207 | 2.475 | .014* |
| | 타인지향 | -.048 | .051 | -.071 | -.950 | .342 |
| | | R=.177 | R ² =.031 | F=7.270*** | | |

* $p < .05$, ** $p < .01$, *** $p < .001$

6.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미용성형의 매개 효과 검증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매개효과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먼저,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172 > \beta=.167$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의 추구’ 변수도 $\beta=.531 > \beta=.51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 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172 > \beta=.160$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의 추구’ 변수도 $\beta=.531 > \beta=.522$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으로 한 매개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170 > \beta=.15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의 추구’ 변수는 $\beta=.531 < \beta=.532$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용성형은 생의 의미와 독립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결과로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의 내적 요인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이 살아감에 있어 미용성형을 통해 삶에 전반적인 활기와 건강한 신체상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은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연구한 최미혜(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간주되고, 최미혜(2010)의 연구에서는 미용수술을 한 여성에게 자기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용성형을 통한 자기만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용수술을 통해 자기존중감을 높여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과 외모를 통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영란, 김기범(2006)의 여성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 의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있어 외모의 개선은 타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과 수술 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승인으로 인해 만족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였고, 김성희(2009)는 여성의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50대 이후 여성들은 외모스트레스를 저하시키기 위해 성

형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7>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 자 아 수 용 | (상수) | .868 | .122 | | 7.109 | .000*** | |
| | 1 | 의미의 존재 | .170 | .037 | .172 | 4.645 | .000*** |
| | | 의미의 추구 | .534 | .037 | .531 | 14.358 | .000*** |
| | | R=.651 R ² =.424 F=248.758*** | | | | | |
| | 2 | (상수) | .650 | .130 | | 4.997 | .000*** |
| | | 의미의 존재 | .165 | .036 | .167 | 4.570 | .000*** |
| | | 의미의 추구 | .520 | .037 | .518 | 14.139 | .000*** |
| | | 성형의향 | .088 | .020 | .129 | 4.434 | .000*** |
| | R=.664 R ² =.440 F=176.968*** $\Delta R^2=.016$ $\Delta F=19.658$ *** | | | | | | |
| | 3 | (상수) | .538 | .134 | | 4.020 | .000*** |
| | | 의미의 존재 | .159 | .036 | .160 | 4.414 | .000*** |
| | | 의미의 추구 | .525 | .036 | .522 | 14.390 | .000*** |
| 성형개선만족 | | .121 | .022 | .157 | 5.462 | .000*** | |
| R=.670 R ² =.448 F=182.857*** $\Delta R^2=.024$ $\Delta F=29.833$ *** | | | | | | | |
| 4 | (상수) | .646 | .133 | | 4.850 | .000*** | |
| | 의미의 존재 | .157 | .036 | .158 | 4.311 | .000*** | |
| | 의미의 추구 | .534 | .037 | .532 | 14.530 | .000*** | |
| | 타인지향 | .080 | .020 | .115 | 3.973 | .000*** | |
| R=.661 R ² =.437 F=174.726*** $\Delta R^2=.013$ $\Delta F=15.783$ ***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180 > \beta=.176$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의 추구’ 변수도 $\beta=.497 > \beta=.48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180 > \beta=.17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미의 추구’ 변수도 $\beta=.497 > \beta=.49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

재' 변수는 $\beta=.180 > \beta=.170$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미의 추구' 변수는 $\beta=.497 = \beta=.49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의 의미와 심리적 웰빙 사이에 미용성형이 완전매개하는 효과로 미용성형이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선택의 기회와 이직 등의 삶의 계획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모개선에 따른 자신에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결과로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을 간주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자기인식이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Goldenberg et al.(2000)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8>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 계획 실 현 | (상수) | 1.269 | .115 | | 11.017 | .000*** | |
| | 1 | 의미의 존재 | .163 | .035 | .180 | 4.719 | .000*** |
| | | 의미의 추구 | .458 | .035 | .497 | 13.041 | .000*** |
| | | R=.624 R ² =.389 F=215.240*** | | | | | |
| | 2 | (상수) | 1.116 | .124 | | 9.028 | .000*** |
| | | 의미의 존재 | .160 | .034 | .176 | 4.650 | .000*** |
| | | 의미의 추구 | .448 | .035 | .487 | 12.819 | .000*** |
| | | 성형의향 | .062 | .019 | .099 | 3.298 | .001** |
| | | R=.631 R ² =.399 F=149.215*** ΔR^2 =.010 ΔF =10.876** | | | | | |
| | 3 | (상수) | 1.072 | .128 | | 8.373 | .000*** |
| | | 의미의 존재 | .156 | .034 | .172 | 4.547 | .000*** |
| | | 의미의 추구 | .452 | .035 | .491 | 12.969 | .000*** |
| 성형개선만족 | | .072 | .021 | .103 | 3.417 | .001** | |
| R=.632 R ² =.399 F=149.651*** ΔR^2 =.010 ΔF =11.675** | | | | | | | |
| 4 | (상수) | 1.117 | .126 | | 8.842 | .000*** | |
| | 의미의 존재 | .154 | .035 | .170 | 4.461 | .000*** | |
| | 의미의 추구 | .458 | .035 | .497 | 13.122 | .000*** | |
| | 타인지향 | .055 | .019 | .086 | 2.870 | .004** | |
| | R=.630 R ² =.396 F=147.776*** ΔR^2 =.007 ΔF =8.239**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3)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 = .131 > \beta = .12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의 추구’ 변수도 $\beta = .441 > \beta = .43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 = .131 > \beta = .12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의 추구’ 변수도 $\beta = .441 > \beta = .43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매개변수는 ‘의미의 존재’와 ‘의미의 추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를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의미의 존재’ 변수는 $\beta = .131 > \beta = .12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나, '의미의 추구' 변수는 '모형 1=.441 = 모형 4=.441'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매개 변수는 '의미의 존재' 변수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생의 의미와 심리적 웰빙 사이에 미용성형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며, 이는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여가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미용성형 후 더 나아진 타인에게 자신의 모습이 호의적으로 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의 의미가 심리적인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며, 노인의 여가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한 최창현, 곽미정(2015)과 여성의 화장을 통한 미와 자기개념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 연구한 차영란, 김기범(2006)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또한 텔레비전 드라마노출과 미용성형태도를 연구한 장준수(2011)의 연구에서는 드라마 노출은 여성 시청자들의 상향적 사회비교를 높여 미용성형 태도에 영향 주었고, 이는 본인에 대한 자의식이 강한 여성일수록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가 강하며, 사회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미용성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 결과로써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등 미용성형의 중요함을 논증할 수 있다.

<표 19>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 대 인 관 계 | (상수) | 1.294 | .134 | | 9.685 | .000*** | |
| | 1 | 의미의 존재 | .127 | .040 | .131 | 3.174 | .002** |
| | | 의미의 추구 | .435 | .041 | .441 | 10.681 | .000*** |
| | | R=.532 R ² =.283 F=133.200*** | | | | | |
| | 2 | (상수) | 1.160 | .144 | | 8.067 | .000*** |
| | | 의미의 존재 | .124 | .040 | .128 | 3.108 | .002** |
| | | 의미의 추구 | .426 | .041 | .433 | 10.481 | .000*** |
| | | 성형의향 | .054 | .022 | .081 | 2.472 | .014* |
| | | R=.538 R ² =.289 F=91.508*** ΔR^2 =.006 ΔF =6.110* | | | | | |
| | 3 | (상수) | 1.059 | .148 | | 7.136 | .000*** |
| 의미의 존재 | | .119 | .040 | .123 | 2.989 | .003** | |
| 의미의 추구 | | .428 | .040 | .434 | 10.594 | .000*** | |
| 성형개선만족 | | .086 | .024 | .114 | 3.512 | .000*** | |
| R=.544 R ² =.296 F=94.400*** ΔR^2 =.013 ΔF =12.334** | | | | | | | |
| 4 | (상수) | 1.133 | .147 | | 7.723 | .000*** | |
| | 의미의 존재 | .118 | .040 | .121 | 2.933 | .003** | |
| | 의미의 추구 | .435 | .041 | .441 | 10.738 | .000*** | |
| | 타인지향 | .058 | .022 | .086 | 2.624 | .009** | |
| | R=.538 R ² =.290 F=91.868*** ΔR^2 =.007 ΔF =6.884*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매개효과

(1)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
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으로 한 매개 회
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000 < \beta=-.01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041 < \beta=-.07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β
 $=-.557 > \beta=-.52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
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
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으로 한 매
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
안정’ 변수는 $\beta=.000 < \beta=-.01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 또한 $\beta=-.041 < \beta=-.086$ 임을 확
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
는 $\beta=-.557 > \beta=-.52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000 < \beta=-.007$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041 < \beta=-.07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557 > \beta=-.53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본 결과 김현정(2014)의 실버소비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노화예방제품 수용에 미치는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며, 김현정(2014)의 연구결과는 노화를 경험하는 중년에서 노년까지 노화에 대해 부정하거나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적인 행위를 하고,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버소비자의 자기효능감은 노화불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영희, 고성희, 윤옥중(2018)은 60대~7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심도와 미용성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미용성형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회가 되면 미용성형을 받고 싶어 하였으며, 70대 여성의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며, 시니어 세대의 여성에게 있어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매력상실로 이어져 개인이 처한 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우울증을 유발과 함께 심리적인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0>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자아수용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 자 아 수 용 | (상수) | 5.059 | .130 | | 38.836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000 | .034 | .000 | -.008 | .994 | |
| | 1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34 | .028 | -.041 | -1.211 | .226 | |
| | 노인의 삶 만족 | -.547 | .034 | -.557 | -16.019 | .000*** | |
| | R=.572 R ² =.327 F=109.175*** | | | | | | |
| | 2 | (상수) | 4.706 | .142 | | 33.052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011 | .033 | -.011 | -.336 | .737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61 | .028 | -.073 | -2.193 | .029* |
| | | 노인의 삶 만족 | -.519 | .034 | -.528 | -15.354 | .000*** |
| | | 성형의향 | .120 | .022 | .176 | 5.578 | .000*** |
| | R=.597 R ² =.356 F=93.313*** $\Delta R^2=.030$ $\Delta F=31.113^{**}$ | | | | | | |
| | 3 | (상수) | 4.591 | .144 | | 31.946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018 | .033 | -.018 | -.558 | .577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72 | .028 | -.086 | -2.596 | .010* |
| | | 노인의 삶 만족 | -.516 | .033 | -.525 | -15.443 | .000*** |
| | | 성형개선만족 | .163 | .024 | .213 | 6.805 | .000*** |
| R=.608 R ² =.370 F=98.953*** $\Delta R^2=.043$ $\Delta F=46.304^{**}$ | | | | | | | |
| 4 | (상수) | 4.751 | .143 | | 33.117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007 | .033 | -.007 | -.213 | .831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59 | .028 | -.071 | -2.116 | .035* | |
| | 노인의 삶 만족 | -.528 | .034 | -.537 | -15.589 | .000*** | |
| | 타인지향 | .105 | .022 | .152 | 4.782 | .000*** | |
| R=.591 R ² =.349 F=90.250*** $\Delta R^2=.022$ $\Delta F=22.864^{**}$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2)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
실현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
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으로 한 매개 회
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 = -.049 < \beta = -.058$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 = -.057 < \beta = -.086$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 =$
 $-.427 > \beta = -.40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
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
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으로 한 매
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
안정’ 변수는 $\beta = -.049 < \beta = -.06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 = -.057 < \beta = -.09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 =$
 $-.427 > \beta = -.402$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
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 = -.049 < \beta = -.05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 = -.057 < \beta = -.08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 = -.427 > \beta = -.41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노화불안과 심리적 웰빙 사이에서 미용성형이 완전히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연구한 양옥지, 이수림(2020)의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한 결과로써,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을 받아들이고 인지함에 따라 미용성형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시니어 여성일수록 성형에 긍정적이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긍정적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1>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계획실현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1 | (상수) | 4.879 | .129 | | 37.857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46 | .033 | -.049 | -1.369 | .171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44 | .028 | -.057 | -1.581 | .114 |
| | 노인의 삶 만족 | -.384 | .034 | -.427 | -11.371 | .000*** |
| | | R=.464 | R ² =.215 | F=61.656*** | | |
| 2 | (상수) | 4.590 | .142 | | 32.352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55 | .033 | -.058 | -1.657 | .098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66 | .028 | -.086 | -2.380 | .018* |
| | 노인의 삶 만족 | -.361 | .034 | -.401 | -10.724 | .000*** |
| | 성형의향 | .098 | .021 | .157 | 4.579 | .000*** |
| | | R=.489 | R ² =.239 | F=52.851*** | $\Delta R^2=.024$ | $\Delta F=20.966***$ |
| 3 | (상수) | 4.543 | .144 | | 31.447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59 | .033 | -.062 | -1.781 | .075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71 | .028 | -.093 | -2.554 | .011* |
| | 노인의 삶 만족 | -.362 | .034 | -.402 | -10.774 | .000*** |
| | 성형개선만족 | .117 | .024 | .167 | 4.861 | .000*** |
| | | R=.492 | R ² =.242 | F=53.700*** | $\Delta R^2=.027$ | $\Delta F=23.630***$ |
| 4 | (상수) | 4.636 | .143 | | 32.462 | .000*** |
| | 노인심리안정 | -.051 | .033 | -.054 | -1.545 | .123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64 | .028 | -.083 | -2.289 | .022* |
| | 노인의 삶 만족 | -.369 | .034 | -.410 | -10.948 | .000*** |
| | 타인지향 | .083 | .022 | .131 | 3.798 | .000*** |
| | | R=.481 | R ² =.232 | F=50.768*** | $\Delta R^2=.016$ | $\Delta F=14.425***$ |

* $p < .05$, ** $p < .01$, *** $p < .001$

(3)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로 한 매개 회귀 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 = -.097 < \beta = -.105$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 = -.059 < \beta = -.08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 = -.447 > \beta = -.42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의향’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 = -.097 < \beta = -.11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 = -.059 < \beta = -.095$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 = -.447 > \beta = -.422$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니어 세대 여성의 ‘노화불안’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로 한 매개 회귀 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노인심리안정’ 변수는 $\beta = -.097 < \beta = -.10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변수도 $\beta = -.059 < \beta = -.08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삶 만족’ 변수는 $\beta = -.447 > \beta = -.432$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 매개변수는 ‘노인의 삶 만족’ 변수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니어 세대 여성에게 있어 노화로 인한 외모불안은 노인접촉불안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노인접촉불안은 사회성이 낮고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시니어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 사이에서 미용성형이 부분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미용성형 요인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중년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신학진(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써, 신학진(2012)의 연구결과는 노화불안이 높은 중년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노인과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표 22>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 중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β | t | sig. | |
|--|--|------------|-------|---------|---------|---------|---------|
| 대 인 관 계 | (상수) | 4.980 | .134 | | 37.033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098 | .035 | -.097 | -2.804 | .005** | |
| | 1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48 | .029 | -.059 | -1.682 | .093 | |
| | 노인의 삶 만족 | -.431 | .035 | -.447 | -12.222 | .000*** | |
| | R=.504 R ² =.254 F=76.623*** | | | | | | |
| | 2 | (상수) | 4.734 | .149 | | 31.814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105 | .035 | -.105 | -3.044 | .002**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67 | .029 | -.082 | -2.322 | .021* |
| | | 노인의 삶 만족 | -.411 | .035 | -.427 | -11.643 | .000*** |
| | | 성형의향 | .084 | .022 | .125 | 3.718 | .000*** |
| | R=.519 R ² =.269 F=62.014*** $\Delta R^2=.015$ $\Delta F=13.820$ ** | | | | | | |
| | 3 | (상수) | 4.616 | .151 | | 30.667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112 | .034 | -.111 | -3.252 | .001**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78 | .029 | -.095 | -2.692 | .007** |
| | | 노인의 삶 만족 | -.406 | .035 | -.422 | -11.621 | .000*** |
| 성형개선만족 | | .127 | .025 | .169 | 5.041 | .000*** | |
| R=.530 R ² =.281 F=65.897*** $\Delta R^2=.027$ $\Delta F=25.408$ ** | | | | | | | |
| 4 | (상수) | 4.741 | .149 | | 31.778 | .000*** | |
| | 노인심리안정 | -.103 | .035 | -.102 | -2.979 | .003** | |
| | 노인에 대한 두려움 | -.068 | .029 | -.083 | -2.345 | .019* | |
| | 노인의 삶 만족 | -.416 | .035 | -.432 | -11.813 | .000*** | |
| | 타인지향 | .082 | .023 | .120 | 3.577 | .000*** | |
| R=.518 R ² =.268 F=61.670*** $\Delta R^2=.014$ $\Delta F=12.795$ ** | | | | | | | |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1. 결론

본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 나타난 현대 시니어 세대 여성이 인간의 마지막 발달기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노화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미용성형을 통한 외모개선이 살아감에 있어 행복과 만족을 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대한 영향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질의문답 방식을 이용하여 679부를 명명척도, 5점 Likert척도를 통해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을 통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 하였으며,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각 변수들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각 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결혼상태, 가족동거유형, 보유종교, 최종학력, 직업상태, 월 생활비, 주 소득원, 건강상태, 노후준비 상태, 친구 수의 12가지로 분류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총 679명 중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은 '50~54세'였고, 결혼의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족동거유형에서는 '부부끼리 동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보유

종교는 불교가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월 생활비 부분에서는 ‘2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주 소득원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상태에서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친구 수 또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여가사회활동에서는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대 시니어 세대 여성의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50~55세’의 연령층이 사회적 또는 신체적으로 노화의 초기 단계로써 퇴직이전의 상태로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통한 생계유지와 다양한 여가사회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은아, 1992). 또한 ‘가족끼리 동거’와 ‘배우자 있음’이 가장 많은 원인은 보다 젊은 나이로써 배우자와의 사별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자녀들의 나이는 20대 초·중반~30대 초반이 가장 많아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심리적 웰빙의 상관관계에서 미용성형의 모든 변수는 노화불안의 하위요인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용성형 중 ‘성형개선만족’과 ‘타인지향’변수는 노화불안 중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노인의 삶 만족’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용성형 중 ‘타인지향’변수는 생의 의미 중 ‘의미의 존재’변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화불안 중 ‘노인심리안정’과 ‘노인에 대한 두려움’의 변수는 서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니어 여성들에게 있어 아름다운 외모는 나이가 들어도 큰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적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미용성형이라는 수단을 통해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외모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선된 외모는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생활을 할 때 직위 상승과 같은 사회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삶 전체에 활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차영란, 김기범, 2006).

셋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 및 심리적 웰빙의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의 일반적 특성 중 건강상태에서 매우 나쁜 수준을 가진 대상자는 생의 의미와 심리적 웰빙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친구 수가 많은 편인 대상자는 생의 의미, 미용성형에서 높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노화불안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수록 노화불안에서 낮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심리적 웰빙에서는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였고, 노후준비상태가 잘 되어 있으며, 친구 수가 많은 편일수록 노화불안에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시니어 여성들의 건강 상실이 정신적·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반적인 삶에 있어 의욕을 저하시키며(정미경, 2003),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준비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것으로 살아감에 있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할 경우는 삶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자존감 하락과 함께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강유진, 2005).

넷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의미의 존재는 미용성형의 타인지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형의향과 타인지향은 의미의 추구에서만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생의 의미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는 의미의 존재, 의미의 추구에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 심리안정은 성형개선만족에서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은 미용성형의 성형의향, 성형개선만족, 타인지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노인심리안정이 대인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삶 만족은 자아수용, 계획실현, 대인관계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형개선만족이 자아수용, 대인관계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욕구에 맞춰 시니어 세대 여성의 미용성형은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위치의 상승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써 행복한 제 3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Flannery, 1983), 자신을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적극적인 도전과 함께 활발한 사회활동,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또한 노화로 인한 외모의 매력 상실이 미용성형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유진, 2016).

다섯째,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미용성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생의 의미가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용성형이 의미의 존재, 의미의 추구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화불안이 미용성형에 따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용성형이 노인심리안정, 노인에 대한 두려움, 노인의 삶 만족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삶과 태도에 따라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심리적 웰빙이 높은 시니어 세대 여성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주변 사람들과 깊고 진지한 상호교환을 하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미용성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생의 의미, 노화불안, 미용성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시니어 세대의 여성 미용성형의 수용도와 심리적 웰빙을 높여 생에 대한 태도와 노화에 대한 태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 경기지역의 시니어 세대 여성들로만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시니어 세대의 여성들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부분과 생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고,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다양한 변인들과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는 향후 다양한 환경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 여성들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을 파악하여 미용성형에 대한 수용도와 심리적 웰빙의 관계에 미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원인을 보다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니어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지위 상승과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사회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개인적 환경에서 원활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의 보호법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pp.159-174.
- 강향미 (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가 노화불안과 죽음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범석 (2014). *시니어의 인터넷쇼핑 구매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무원연금 (2020). 공무원연금공단, 436, pp.28-31.
- 권오일 (2008). *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개념, 인지된 자유감과 심리적 웰빙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 (2019).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p.47.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pp.19-39.
- 김명자 (1998). *중년기발달*. 서울: 교문사.
- 김민지 (2017). *젊은 소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덴티티 목적 관련성과 사회적 반사용 압력의 요인에 관한 연구-미용 성형 상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희, 신순옥 (2014). 중년기 성격과 노화불안 성격5요인, 생성감과 노화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pp.1-25.
- 김병태 (2018).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은퇴적응유형과 은퇴자산 인출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석일(2004).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2009). *여성의 연령별 화장 및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지 (2002). 여성가장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생의 의미수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2), pp.190-200.

김숙남, 최순옥, 신경일, 이정희 (2008). 일부 지역 성인의 노후불안. *한국노년학*, 28(1), pp.19-32.

김순안 (2010). *갱년기 여성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안 (2012). 갱년기 여성의 발달현상에 대한 태도와 폐경증상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2(2), pp.631-647.

김신미, 김순이 (2008).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pp.281-291.

김연정 (2018). *대학교양체육 참가자들의 수업만족, 심리적 웰빙, 여가지속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욱 (2010). 한국노인과 미국노인의 노화불안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7, pp.71-94.

김원희 (2019).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성격특성, 가족지지,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동방문화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진 (2017). *중년기의 노화불안, 가족건강성, 대인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아 (1992).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17). *노인의 차이연령과 노화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일석 (2014). *뉴시니어 세대 수용자 태도에 따른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희, 김옥 (2015). 서울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전문적 역량의 조절효과. *서울도시연구*, 16(4), pp.193-214.
- 김정실, 이선재 (2008). 뉴실버 여성소비자의 지각연령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32(10), pp.1535-1547.
- 김주연 (2015). *연하장애 환자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생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 (2016).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개발-55~69세 남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훈 (2015). *뉴실버 세대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4). *실버소비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노화예방제품수용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화선, 최은정, 양정남 (2009). 노화사실인지 정도와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pp.135-165.
- 김효실 (2014). *호텔 직원의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웰빙 간 관계 연구*. 아산춘천향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궁민지 (2007). *시니어 패션 디자인 분석 및 선호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섭 (2017). 일-생활의 균형(WLB)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웰빙의 매개효과. *경영경제연구*, 39(2), pp.135-161.
- 남승미 (2019). *중년기의 여가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자아탄력성과 여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정희 (2015). 노부모의 의존성 및 과잉간섭과 증언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노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오 (2008). 웰빙웨어디자인제품에 관한 연구-섬유제품의 소비자 구매 행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2013). 노인복지론. 양서원, p.48.
- 박연희, 박미정, 전선복 (2013). 여성노인의 외모관심이 생활만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학회지*, 11(2), pp.383-391.
- 박윤진, 김금중 (2017). 노인의 우울, 생의 의미가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5), pp.411-417.
- 박은아 (2015). 문화적 자기개념과 외모중심의 대인지각 성향의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31(1), pp.159-192.
- 박정묘 (2007). 심리경향에 따른 중년기 생의 의미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미, 이상익, 신철진, 손정우, 김시경, 주가원 (2016). 성 역할 정체감과 기질 성격 유형이 미용 성형 수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료정신의학*, 22(3), pp.225-236.
- 박혜영 (2018). 시니어관광객의 가치관, 관광동기, 관광지선택속성, 관광만족의 영향관계-방한 중일 관광객 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원 (2013). 자기표현,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아름, 전수진 (2015).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음악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행태 연구. *인제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14(4), pp.21-34.

- 변금순, 민성길, 김선아, 신극선 (1999). 미용성형 수술과 정신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38(1), pp.99-104.
- 서대석 (2018). 사회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0), pp.575-583.
- 서정희 (2008). 성형소비문화. 서울: 내하출판사, pp.36-37.
- 성기욱 (2016). 노후불안과 자아통합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창수 (2011). 시니어창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일 (2015). 성인여성의 노화불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pp.329-346.
- 신명수 (2011). 한국 미용성형외과의 현재와 미래. *대한의사협회지*, 54(6), pp. 581-588.
- 신용주, 김혜수 (2016). 노인복지론. 공동체. pp.184-192.
- 신학진 (2012). 한국중년의 노화불안요인이 노인차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지*, 0(55), pp.33-63.
-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화장, 헤어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자영, 서은경 (2018). 시니어의 세대별 도서관이용행태 비교분석: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3), pp.287-309.
- 안가영 (2018). 시니어 소비자의 욕구 요인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효과연구: 인지연령, 시간인지,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순옥 (2014). 중년여성우울증에 대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영미 (2003).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4), pp.576-585.
- 양두병 (1999), 미용 성형 수술 어디를, 어떻게2, 서울: 명상, p.15.
- 양두병, 윤진호, 박근호 (2002), 미용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4. 서울: 도서출판 명상, p. 273.
- 양옥지, 이수림 (2020). 중년의 노화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인지적 유연성과 주관적 경제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pp.491-502.
- 양은미 (2018). *중·장년층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치매예방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노화불안과 치매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은진, 김순은, 김명일 (2019). 노인의 노화 불안 유형과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1(2), pp.91-115.
- 양참상 (2006). 자아실현과 사회실현의 세계: 현상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0(4), pp.35-50.
- 양춘호 (2007). 노인의 운동 참여와 주관적 건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코칭능력개발지*, 9(3), pp.191-200.
- 엄동춘, 남은숙, 이호연, 이은봉, 윤영임, 채공주 (2012).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한국간호학회*, 42(3), pp.434-442.
- 엄현신 (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여정숙 (2012). *중년기 성인의 영성, 삶의 의미, 상징적 불멸성과 생산성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계화 (2005).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생성감과 심리적 웰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인숙 (2019).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pp.472-486.
- 오근희 (2009). *수영 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 정도에 따른 운동 중독과 심리적 웰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연정 (2010). 뉴 시니어 세대의 등장과 금융 산업. *서울: 월간신한리뷰3집*, pp.23-33.
- 오영환 (2013). *시니어관광자의 정서, 동기, 만족과 심리적복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은아 (2019). *중년기 노화불안 척도 개발 및 노화불안과 웰레이징의 관계 모형 검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경자(2002). *여성의 외모주의와 성형의료산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pp.211-225.
- 원석조 (2018). 노인복지론. 공동체, pp.93-94.
- 유병웅 (2016). 여가인식과 여가몰입이 자아효능감 및 심리적웰빙에 미치는 영향-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숙자(2017). *노인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노화불안의 매개효과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성준 (2013). 미용성형서비스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연구-문화적가치와 매체노출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지*, 13(2), pp.11-20.
- 이갑숙, 임왕규 (2012).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pp.291-306.
- 이강호 (2002). *의미치료적 목회상담이 노인의 심리적 문제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박성희 (2006). 평생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애사 연구- 사례재구성을 통한 중년여성의 학습개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2(3), pp.73-95.
- 이동옥 (2014). 노인여성의 몸과 미의 기준. *여성학연구*, 24(2), pp.123-157.
- 이미경 (2017). *뉴 시니어 세대를 위한 혈당 관리 앱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우 (2020). *보육교사의 노화불안 및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재 (2014). *시니어 창업의 성공을 위한 창업품질 요인분석 및 실증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우, 이선미, 오정은 (2010) , 액티브 시니어가 이끄는 실버 시장의 변화와 준비. *서울:KT경제경영연구소*, pp.2-8.
- 이영희, 고성희, 윤옥중 (2018). 60-70대 여성노인의 외모관심도, 미용성형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pp.401-411.
- 이윤경 (2005).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신 (2009). *여대생의 웰빙에 관한 문화기술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진, 성지현, 민혜성, 박영경 (2015). 스마트폰 색채에 따른 시니어의 가독 특성. *한국색채학회*, 29(1), pp.83-92.
- 이은정 (2018). *시니어 세대를 위한 발레필라테스 프로그램 개발*. 상명대학교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희 (2013). 新노인복지론. (주)학지사, pp.69-71.
- 이인수 (2004). 21세기 노인복지론. 대왕두, pp.79-80.
- 이임순 (2020). *중년기 여성학습자의 생활사건 경험, 학습참여 동기와 삶의 의미 간의 관계 - 관계성의 조절효과*. 숙대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순, 정원배 (2005). 관광활동, 여가만족, 심리적웰빙, 주관적웰빙의 관계. *한국관광학회지*, 28(4), pp.149-172.
- 이제행, 조건상 (2017). 시니어 골프 참여자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pp.407-416.
- 이주미 (2016). 중년남성의 미용건강관리행동이 신체매력지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 (2014). 노인복지론 창지사, p.49.
- 이혜진(2018).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측정도구 개발*.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금선, 김현실 (2012). 노인 우울 및 자살생각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의 효과. *노인복지연구*, 0(55), pp.201-221.
- 장선희 (2015). *중년기 생의 의미와 관련변인의 구조분석*. 부산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희, 최순옥 (2017). 중년기의 생의 의미 구조모형. *성인간호학회지*, 29(4), pp.363-372.
- 장준수 (2011). *한국의 미디어루키즘(media-lookism)에 대한 연구-텔레비전 드라마노출과 미용성형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철승, 정승언 (2016). 진성 리더십과 심리적 웰빙에 대한 직무 만족의 매

- 개효과. *창조와 혁신*, 9(4), pp.107-146.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서영, 송지성 (2020). 병원 키오스크 UI 디자인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사용성 평가 연구-서울 H 대학병원 키오스크 UI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1), pp.411-421.
- 전정원 (2008). *뉴실버 세대의 심리적 변수에 따른 외식소비 행동연구: 라이프스타일과 개인가치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성 (2014). 내외통제성과 노화불안이 중년기 성인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10), pp.571-576.
- 정경환 (2013). 베이비부머세대(baby-boomer generation) 특징에 관한 연구 (1). *글로벌시니어건강증진개발원*, 3(2), pp.5-11.
- 정미경 (2008).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위기에 미치는 효과*.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나 (2014).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웰빙에 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성식 (2015).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와 은퇴준비에 미치는 영향: 서울거주 4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숙희 (2017). *부모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탄력성과 삶의 의미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시은(2018).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과 주관적 연령에 따른 화장품 구매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희 (2020). *부양기대와 정책신뢰가 중고령자의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태호 (2013). *중등교사의 여가스포츠 참가가 스포츠 몰입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환목 (2018). *시니어 산업화 글로벌 마케팅*. 서울: 리빙북스, pp.4-5.
- 조미나, 최미옥 (2019). *중국 여성의 자기표현과 외모관리행동이 미용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5(2), pp.455-462.
- 조안진 (2014). *화장의 사회심리적 기대효과와 신체매력성이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한용 (2016). *감정노동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조직후원인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경환, 이상익 (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40(4), pp.559-566.
- 지기철 (2020). *액티브시니어의 헬스케어와 공감멘토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차의과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경호 (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1(3), pp.17-31.
- 차영란, 김기범 (2006). *여성의 화장에 대한 태도와 성형 의도에 대한 자기 존중감과 신체존중감의 역할 분석*.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1(10), pp.107-123.
- 최경애 (2018). *여성 시니어 블러의 생애사를 통해 본 주체화 과정과 사회적 함의*.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선 (2011). *시니어 세대의 구매성향에 따른 관광상품 구성요소 중요도 인식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혜 (2007). *年齢別로 본 女性의 美意識 및 美容成形手術에 대한 認知度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혜 (2010).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혜, 김정희 (2013).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1), pp.26-33.
- 최성재, 장인협 (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61-62.
- 최순남 (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p.18.
- 최창숙 (2012). 한국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의복선호도 분석에 따른 재킷 제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창현, 광미정 (2015). 노인의 여가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하여. *GRI.연구논총*, 17(1), pp.133-155.
- 최혜연 (2015). 주부들의 댄스스포츠 참여 재미요인이 심리적 웰빙, 인지된 자유감 및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태희원 (2010). 미용성형의료 네트워크의 재구성과 소비자/환자 주체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표종현 (2011). 승마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몰입이 여가정체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민아 (2018). 액티브 시니어 여가활동참여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충족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혜화 (2010). 노화특성 유형별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를 적용한 주택개조.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란 (2005). 노인교육의 이해. 학지사, p. 25.
- 한정란, 김수현(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pp.91-118.
- 허원희 (2012). 뉴실버세대의 디지털미디어 수용과정에서 감성적 가치 요인이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은주 (2015). 관계해택이 고객만족, 신뢰,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미

- 용의료시장 고객성격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금희, 하주영 (2015). 중년·전후기의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요소 및 노
 후준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1), pp.29-39.
- 홍숙자 (2010).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 하우, p.294.
- 황윤용, 오민정, 정진철(2013).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간 기부의도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학회지*, 42(6), pp.1715-1736.

국외 문헌

- Barrett, A. E. & Robbins, C . (2008). The multiple sources of women's
 aging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desires. *Jo
 urnal of Aging and Health*, 20(1), pp.32-65
- Battista, J. & Almond, R. (1973).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36, pp.409-427.
- Baumeister, R. F.& Vohs, K. D. (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IN Snyder. C.R& Shane J. L.(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608-609.
- Bell, D. R., Holliday, M. & Jones, E. P. (2011). Bikinis and Bandages:
 An Itinerary for Cosmetic. *Tourist Studies*, 11(2), p.139-155.
- Beurs, D. E., Beekman, A. T. F., Balkom, A. J. L. M. V., Deeg, D. J.
 H., Dyck, R. V. & Tilburg, W. V. (1999). Consequences of anxiety in
 older persons: its effect on disability, well- being and use of heal
 th services. *Psychological Medicine*, 29(3), pp.583-593.
- Brunelli, E., Bianchi, E., Murru, L., Monformoso, P., Bosisio, M., Gange
 ri, L., Miccinesi, G., Scignaro, M., Ripamonti, C. & Borreani, C.
 (2012). Italian validation of the Purpose In Life (PIL) test and the

- Seeking Of Noetic Goals (SONG) test in a population of cancer patients. *Supportive Care in Cancer*, 20, pp.2775 - 2783.
- Cash, T. F. (1988). The psychology of cosmetics: A research bibliograph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6, pp.455-460.
- Chamberlain, K. & Zika, S. (1988). Measuring meaning in life: An examination of three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 (3), pp.589-596.
- Compton, W. C., Smith, M. L., Cornish, K. A., & Qualls, D. L. (1996). Factor structure of mental health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pp.406-413.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is.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505.6866&rep=rep1&type=pdf//>).
- Daniels, K., & Guppy, A. (1994). Relationships between aspects of work-relate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128(6), pp.691-694.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 pp.497-540.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 pp.71-75.
- Diener,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276-302.

- Diener, E., Lucas, R. E., & Scollon, C. N. (2006). Beyond the hedonic treadmill: Revising the adaptation theory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61*(4), pp. 305-314.
- Edgerton, M. T, Langman, M. W & Oryzinsky, T. (1991). Plastic surgery and psychotherapy in treatment of 100 psychologically disturbed patients. *Plast Re-const Surg*, *88*, pp.594-615.
- Edwards, J. R. (1992). <https://doi.org/10.5465/amr.1992.4279536>
- Elizabeth Heiken, 권복규,전진영 역 (2008). 비너스의유혹. 서울:문학과지성사, p.11.
- Fraboni, M., Saltstone, R. & Hughes, S. (1990). The Fraboni scale of ageism (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n Aging*, *9*, pp.56-66.
- Fredrickson, B. L. (2000). Extracting meaning from past affective experiences: The importance of peaks, ends, and specif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4*, pp.577-606.
- Galinha, L. C. & Ribeiro, P. J. (2008).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e Equation Modelling analysi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 pp.293-314.
- Goldenberg, J. L., McCoy, S. K., Pyszczynski, T., Greenberg, J. & Solomon, S. (2000). The body as a source of self-esteem: The effect of mortality salience on identification with one's body, interest in sex, and appearance 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pp.118-130.
- Grahm, C. (2003). Worry and anxiety in old age. *Aging Mental Health*, *7*(5), pp.187-194.

- Harris, L. A. & Dollinger, S. (2001). Participation in a course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nxiety about aging in oneself and others. *Educational Gerontology, 27*, pp.657-667.
- Hay, G. C. & Heather, B. B. (1973). Changes in Psychometric Test Results Following Cosmetic Nasal Op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2(566)*, pp.89-90.
- Henderson-King, D. & Henderson-King, E. (2005).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 pp.137-149.
- Homan, K. J. & Boyatzis, C. J. (2010). Religiosity, sense of meaning, and health behavior in older adult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0(3)*, pp.173-186.
- Kalavar, J. M. (2001). Examining ageism: Do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differ?. *Educational Gerontology, 27*, pp.506-513.
- King, L. A., Hicks, J. A., Krull, J. L. & DelGaiso, A. K. (2006). Positive affective and the experience of meaning of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pp.179-196.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7(4)*, p.247-249.
- Linda, J. A. & James, A. J. (2008).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Role of Knowledge, Contact and Aging Anxiety. *Educational Gerontology, 35(1)*, p.1.
- McConatha, J. T., Schnell, F., Volkwein, K., Riley, L., & Leach, E. (2003). Attitudes toward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

- 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7(3), pp.203-215.
- Moschis, G. P. (2000). Consumer behavior in later lif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nd methodological issues.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9(4), pp.103-128.
- Moss, T. P. & Harris, D. L. (2009). Psychological change after aesthetic plastic surgery: A prospective controlled outcome study. *Health & Medicine*, 14(5), pp.567-572.
- Neikryg, S. M. (2003). Worrying about a frightening old age. *Aging and Mental Health*, 7(5), pp.326-333.
- Reker, G. T. & Chamberlain, K. (2000). Exploring existential meaning: Optimizing human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p.7.
- Reker, G. T. & Fry, P. S. (2003). Factor structure and invariance of personal meaning measures in cohorts of younger and older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pp.977-993.
- Roy, F. B. & Kathleen, D. V.(2002). The Pursuit of Meaningfulness in Lif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44, pp.608-618.
- Rupp, D. E., Vondanovich, S. J. & Crede', M. (2005).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Ageism: construct validity and group dif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 pp.335-362.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pp.141-14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

- 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63, pp.1017-107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pp.719 - 727.
- Ryff, C. D. & Singer, B. H.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 pp.1-28.
- Ryff, C. D. & Singer, B. H.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1), pp.30-44
- Sarwar, D. B., Wadden, T. A., Pertshuk, M. J., Whitaker, L. A. (1998).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body dysmorphic disorder in 100 cosmetic Surgery Patients, *Plastic Reconstre Surgery*, 1644(9), p.101.
- Scollon, C. N. & King, L. A. (2004). Is the good life the easy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8, pp.127-162.
- Slevec, J. & Marika, T. (2010).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in Middle-Age women: Body Image, Aging, Anxiety, and the Media.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 p.65.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pp.1-14.
- Swami, V., Campana, A. N. N .B., Ferreira, L. & Barrett, Harris, A. S., Tavares, M. C. G. C. F. (2011).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Initial examination of its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e

- s among Brazilian adults. *Body Image* 8, pp.179–185.
- Tallis, F., Eysenk, M. & Mathews, A. (1991). The role of temporal perspective and ego-relevance in the activation of worry struct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pp.909–915.
- Victor, C. R. (1994). Old age in modern society: A Textbook of social gerontology(2nd ed.).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Dordrecht, p.1–261. (http://lps3.books.google.co.kr.libproxy.sungshin.ac.kr/books?hl=ko&lr=&id=okv2BwAAQBAJ&oi=fnd&pg=PP7&dq=Old+age+in+modern+society:+Textbook+of+social+gerontology&ots=sRaSxtAGr7&sig=139B24sKZiMX-QWTnXvPiPIisns&redir_esc=y#v=onepage&q=Old%20age%20in%20modern%20society%3A%20Textbook%20of%20social%20gerontology&f=false)
- Wadsworth, M. & Ford, D. H. (1983). Assesment of personal goal hierarch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4), pp.514–526.
- Warkims, R, E. Costtes, R & Rerroni, P. (1998).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in an elderly Austraian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4), pp.319–332.
- Warr, P. (1990). The measurement of well being and other aspec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3), pp.193–210
- Waterman, A. S. (2008). Reconsidering happiness: A eudaimonist's perspectiv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pp.234–252.

기타 자료

네이버 영어사전:

<https://en.dict.naver.com/#/search?query=senior>(시니어 2020.05.12.)

(검색일자: 2020.03.02.)

네이버 국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946&cid=40942&categoryId=33370>

(검색일자: 2020.03.03.)

쿠키뉴스:

“50대 이상 ‘눈성형’ 전년比 80% 급증”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5190075>

(검색일자: 2020.05.01.)

통계청:

www.kostat.go.kr

(검색일자: 2020.05.03.)

중소벤처기업부:

https://search.mss.go.kr/RSA/front_new/Search.jsp

(검색일자: 2020.05.13.)

Bravo my life:

“젊어지고파~” 오팔세대, ‘눈·리프팅 성형’ 증가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0893

(검색일자: 2020.05.29.)

한국경제:

“내 나이가 어때서”... 최신형 스마트폰·효도 문신, 젊어지는 ‘효도 선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120847231>

(검색일자: 2020.05.30.)

조선일보:

“연령대 따라 ‘동안 성형’ 비절개·절개 맞춤 수술로 자신감 회복한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1968.htm
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자: 2020.06.02.)

대한미용학회:

<https://www.plasticsurgery.or.kr/>

(검색일자: 2020.06.10)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dfef636e3a14c4a9ac0f6fb1f6f04ad>.

(검색일자: 2020.06.12.)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5cfcc21c18e4f89b0a08e11338248af>.

(검색일자: 2020.06.15.)

대한미용학회:

<https://www.plasticsurgery.or.kr/>

(검색일자: 2020.06.20.)

ABSTRACT

The Meaning of Women's Life in the Senior Gene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of age anxiety on the cosmetic surger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i-Yeong Ah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social, economic, and medical technology have developed remarkably around the modern world, the life expectancy of all mankind has been extended, and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enriched. As a result, the society faced a super-aged society with a life expectancy of 100 years on average, and the interest in the aging generation soared socially and economically. This trend is because senior citizens have different cultures and social backgrounds, play a major role in economic growth, and solve them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 of life for

senior wom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 of aging anxiety on cosmetic surger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researches the senior gener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in the older generation, which appear in accordance with the background of modern society. And questions how the meaning of life, aging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ffec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dern senior women and what are the differences in gener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know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eaning of life, aging anxiety, cosmetic surger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 that senior-generation women who are active in the most important positions of the present era can lead satisfactory leisur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happy lives.

The survey was applied to 679 senior wome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rough the questionnaire method. Question and answer methods were used for women who could not read the questionnaire.

The meaning of life used two factors: the existence of meaning and the pursuit of meaning. Aging anxiety used three factors: elderly psychology, fear for the elderly, and satisfaction with life. The cosmetic surgery used three factors: propensity for plastic surgery, satisfaction with plastic surgery, and social recognition, while psychological well-being used three factors: self-acceptance, plann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data analysis method used the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variance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nd the conclusions derived from it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difference analysis between life meaning, aging anxiety, cosmetic surger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in the senior generation, The worse the health of women in the senior generation, the lower the meaning of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better the health, the lower the level of aging anxiety, but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Female seniors with a large number of friends showed high levels of results in the meaning of life, cosmetic surgery, and low levels in aging anxiety.

Second,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meaning of life for senior women on cosmetic surgery, the pursuit factor of meaning of life h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propensity factor for cosmetic surgery. It has been found that the existence of meaning of lif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ther social recognition in cosmetic surgery. Also, It was shown that the factors of existence and pursuit of meaning in the meaning of lif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factors of self-acceptance, plann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in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 of aging anxiety on the cosmetic surgery of senior women, fear of the elderly and satisfaction with life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pensity for plastic surgery of the cosmetic surgery. In addition, all factors of aging anxie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tisfaction with plastic surgery of the cosmetic surgery. In addition, fear for the elderly and satisfaction with lif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social recognition of the cosmetic surgery. In relation to the impact of aging anxiety in senior wom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aging anxiet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elf-acceptance, plann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elderly psychology of aging anxiety had significance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urth, as to the effect of the cosmetic surgery of the senior generation of women on psychological well-being, satisfaction with plastic surgery of the cosmetic surgery has been shown to affect the self-acceptance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propensity for plastic surgery of the cosmetic surgery had a significance fo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Fifth, we have verified the mediated effect of the cosmetic surgery in accordance with the meaning of senior women's lives and aging anxiety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it comes to the effect of meaning of life o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cosmetic surgery, it was found that cosmetic surgery was mediated in the existence of meaning and the pursuit of meaning. Meanwhile, the effect of aging anxie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cosmetic surgery was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in elderly psychology, fear for the elderly, and satisfaction with lif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meaning of the life of women in the senior generation and the impact of aging anxiety on cosmetic surger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re as follows.

This study shows that senior women have different values compared to the past, higher economic power, enjoy a variety of leisure activities, and actively invest in cosmetic practices for better lives with independent

tendencies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children or spouses. For senior women, appearance is perceived as attraction even as they get older, and cosmetic surgery can satisfy the desire of beauty-seeking human nature. Due to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criteria for evaluating appearance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in the past, the improvement of appearance through cosmetic surgery guarantees social status and power and gives a favorable impression to others, and gives vitality to life as a whole,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elf-respect. It also shows a positive attitude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giving meaning to the lives of women in the senior generation and raising happiness.

As such, the meaning of life and aging anxiety of the senior generation are important factors that have a direct effect on cosmetic surger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n senior generation, which appeared in the super aging era, is expected to plan psychologically rather than plan only economic aspects in preparation for retirement due to the improvement of values and living standards compared to the past, and will embrace and implement the remaining leisure time to give meaning to their ow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These senior women will realize their own happiness through overseas travel in various countries, communicate with different generations of races, and plan their overall lives pleasantly and happily. Also, because people find 'youth' attractive, senior women will use cosmetic surgery more frequently than in the past as a means to maintain their youth and improve their appearance, which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cosmetic surgery techniques, the prevention of aging and the improvement of aging appearance.

Therefore, I hope this study will be a positive help to the super aging society as a basic research material that can preven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meaning of the life of women in the senior generation and aging anxiety.

<부록>

시니어 세대 여성의 생의 의미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시니어 세대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나 태도와 노화불안이 미용성형과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 33조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연구를 위해 소중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

지도교수 : 김경희

연구자 : 안지영

이메일 : wuddldy123@naver.com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1. 본인의 연령은?

- ① 50~54세 ② 55~59세 ③ 60~64세 ④ 65세 이상

2. 본인의 결혼 상태는?

- ① 배우자 있음 ② 이혼/별거 ③ 사별 ④ 기타

3. 본인의 가족동거 유형은?

- ① 혼자 ② 부부 ③ 기혼자녀 가족 ④ 미혼자녀 ⑤ 부모님

4. 본인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5. 본인의 최종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6. 본인의 직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본인의 월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8. 본인의 주 소득원은 어느 곳에 해당합니까?

- ① 연금 ② 근로소득 ③ 임대소득/금융소득 ④ 자녀용돈/기타

9.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느 곳에 해당합니까?

- ① 매우 나쁘다
- ② 나쁘다
- ③ 보통이다
- ④ 좋다
- ⑤ 매우 좋다

10. 본인의 **노후준비 상태**는 어느 곳에 해당합니까?

- ①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② 조금 되어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되어 있다
- ⑤ 아주 잘 되어 있다

11. 본인의 **친구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적은 편이다
- ② 비교적 적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비교적 많은 편이다
- ⑤ 많은 편이다

12. 본인의 **여가·사회활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II. 다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숫자에 V표 해 주십시오.

| 생의 의미 | | 매우 그렇 지 않다 | 그 렇 지 않다 | 보 통 이 다 | 그 렇 다 | 매 우 그 렇 다 |
|-------|------------------------------------|---------------------|-------------------|------------------|-------------|-----------------------|
| 1. |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는 항상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내 삶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Ⅲ. 다음은 **노화불안**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숫자에 **V표** 해 주십시오.

| | 노화불안 | 매우 그렇 지 않다 |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1. |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해 더 걱정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거울을 볼 때 나이와 함께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싫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노년에 모든 친구들이 먼저 죽을까봐 두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불안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는 나이 드신 친척 분 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는 노인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나는 노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나는 늙어 보일까봐 두려워 해본 적이 없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나는 노년기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나는 젊어 보이기 위해 나이를 속여 본 적이 없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것 같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나는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즐겁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나는 노년이 되었을 때 삶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나는 노년기에 할 일이 많을 것이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나는 노인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전혀 괴롭지 않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나는 거울을 보고 흰머리를 발견할 그날이 전혀 두렵지 않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까봐 두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나는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IV. 다음은 **미용성형**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숫자에 **V표** 해 주십시오.

| | 미용성형 | 매우 그렇 지 않다 |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1. | 나는 가끔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무료로 수술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만약 내가 고통을 알지만 나쁜 부작용이 없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내 파트너가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면 나는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려해 볼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는 성형수술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R).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만약 내 파트너가 나를 더 매력적으로 여길 것이라 생각한다면 나는 수술을 받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만약 간단한 미용 시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수술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만약 수술이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성형수술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더욱 좋게 느끼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외모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나는 젊어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외모에 대해 몇 년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최소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성형수술은 사람들의 자아상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간단한 성형수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볼 생각을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V. 다음은 **심리적 웰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숫자에 **V표** 해 주십시오.

| 심리적 웰빙 | 매우 그렇 지 않다 | 그렇 지 않다 | 보 통 이 다 | 그 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1. 나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삶의 목표를 세워 하루하루 계획성 있게 살아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은 크게 발전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을 때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대다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내 자신을 친구나 친지들과 비교할 때면 내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정말 필요할 때 내말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그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의 고민을 털어 놓을 만한 가까운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과거에 세웠던 목표가 돌이켜보면 현재의 바탕이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R).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나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제때에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16. | 친구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나의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많은 면에서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남들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고 편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미래의 계획을 짜고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생활을 만족스럽게 꾸려나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 나는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내 가정과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꾸려올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 내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